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Primo

파이널 주간지 1주차

D A Y

1

현대시 신석정, 「들길에 서서」(EBS 수능특강)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승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
과이거니……

1.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시오.

- (1)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 ×)
- (2) 수직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
- (3) 동일한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
- (4) 어조의 변화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
- (5) 명암 대비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 / ×)

현대시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EBS 수능특강)

맛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젓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2.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시오.

- (1)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
- (2) 관찰한 대상의 모습을 통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 (○ / ×)
- (3)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이입하여 표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
- (4)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 (5)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 대상의 좌절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

고전시가 작자 미상, 「청산별곡」 (EBS 수능특강)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쁘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띠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녹 먹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띠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3.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십시오.

- (1) 상징적 소재를 통해 화자의 불행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
- (2) 색채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 ×)
- (3) 대화를 주고받으며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 ×)
- (4)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대상의 모습을 제시하여 구조적 유기성을 높이고 있다. (○ / ×)
- (5)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들로 화자의 처지가 변화된 이유를 나타내 화자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 ×)

현대소설 이상, 「날개」(EBS 수능특강)

나는 오늘 아침에 네 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다. 그때에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림 한 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어 온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별안간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의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다.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서 연구할 작정이었다. 나는 길가의 도랑창, 핀 구경도 못한 진 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였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 않았다.

거기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좌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오 분이 못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여섯 개를 한 꺼번에 질경질경 씹어 먹어 버렸다. 맛이 익살맞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 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나는 게서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 하고 귀에 언제까지나 어렴풋이 들려왔다.

내가 잠을 깨었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야 했나?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 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던 것일까?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보면,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어 온 것

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의혹을 가졌다는 것이 참 안됐다.

(중략)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붙겨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아려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화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 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맑스 : 마르크스(Marx). 독일 관념론, 공상적 사회주의 및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함.

* 말사스 : 맬서스(Malthus). 영국의 경제학자.

* 아스피린, 아달린~아스피린, 아달린 : 아달린과 아스피린은 서로 다른 약 이름이지만, 그 말의 첫소리와 끝소리는 다 같이 '아'와 '린'으로 그 음이 유사하게 들린다. 그 연상에서 맑스와, 말사스, 마도로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즉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그 사상도 아달린과 아스피린만큼 차이가 있다. 그 첫소리는 '마'로 시작하고 끝소리는 '스'로 끝나 있다. 결국 동음이의어의 연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 미쓰코시 : 일제 강점기에 서울 충무로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로직 : 논리.

* 변해 : 말로 풀어 자세히 밝힘.

4.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시오.

- (1)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 ×)
- (2)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 ×)
- (3) 사건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
- (4)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고전소설 박지원, 「호질」 (EBS 수능특강)

하루는 범이 창귀들에게 분부를 내렸다.

“오늘도 해가 저무니,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까?”

굴각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아까 점을 쳐 보았더니 뿔 있는 놈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머리를 한 놈이 나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비틀비틀 성긴 걸음이었습니니다. 뒤통수에 꼬리가 붙고, 콩무니를 감추지 못하는 놈이었습니니다.”

이올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문(東門)에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의원(醫員)이라고 합니다. 그는 입에다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과 고기가 향기롭습니니다. 서문에도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는 온갖 귀신에게 아양부리느라고 날마다 목욕재계하기 때문에 고기가 깨끗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골라서 잡수시지요.”

범이 수염을 거스르고 얼굴빛을 붉히면서 말하였다.

“의(醫)는 의(疑)다. 자기도 의심스러운 처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해서,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은 것이 몇 만이나 된다. 무(巫)는 무(誣)다. 귀신을 속이고 인민들을 미혹시켜,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은 것이 몇 만이나 된다. 그래서 못 사람들의 노여움이 뿔속까지 스며들어 금잠(金蠶)으로 화하였으니,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자 육흔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 숲속에 어떤 고기가 있는데, 인자한 염통과 의로운 쓸개를 지녔습니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순결한 지조를 품었으며, 머리에는 악(樂)을 이고 발에는 예(禮)를 신었습니니다. 입으로는 백가(百家)의 말을 외우며 마음속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으니, 그의 이름은 석덕지유(碩德之儒)라고 합니다. 등살이 오뎡하고 몸집이 기름져서, 오미(五味)를 갖추어 지녔습니니다.”

범이 눈썹을 치켜세우고 침을 흘리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짐이 더 듣고 싶으니 어떠하냐?”

하였다. 창귀들이 다투어서 범에게 추천하였다.

“일음(一陰) 일양(一陽)을 도(道)라고 하는데, 그 유(儒)가 이를 꿰뚫었습니다. 오행(五行)이 서로 낳고 육기(六氣)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그 유(儒)가 이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먹는 것 가운데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범이 이 말을 듣고는 문득 격정스럽게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반갑지 않은 말투로 말하였다.

“음양이라는 것은 한 기운이 죽고 사는 것인데, 그들이 둘

로 나뉘었으니 그 고기가 잡힐 것이야. 오행도 제 바탕이 있어서 애당초 서로 낳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들을 구태여 자(子), 모(母)로 가르고 심지어는 짜고 신 맛까지 들여서 분해하였으니, 그 맛이 순하지 못할 거야. 육기(六氣)도 제각기 행하는 것이라서 남이 이끌어 주기를 기다릴 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망령되게 ‘재성(財成) 보상(輔相)’이라고 일컬으며 사사롭게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그런 고기를 먹다가는 너무 딱딱해서 체하거나 구역질나지 않겠느냐?”

정(鄭)이라는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었다.

그는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들이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封)해서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고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이르기,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월양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저기 저 가마솔 세발솔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

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
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괘 선
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
추고 킬킬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
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괘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
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괘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다.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
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
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
은 신령스러운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
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
니다.”

범은 북괘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
(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
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
전에서 아침을 떠나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本性)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
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
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들의 떠드는 천 소리 만 소리는 오
륜(五倫)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
은 내내 사강(四綱)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도회지에 코
베이고, 발꿈치 찢리고, 얼굴에다 자자(刺字)질하고 다니
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포승줄
과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刑具)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겨
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는구나.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
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느냐?”

- * 의(醫) : 의원.
- * 의(疑) : 의심함.
- * 무(巫) : 무당.
- * 무(誣) : 무고함.
- * 유(儒) : 선비.
- * 유(諛) : 아첨함.

5.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시오.

- (1) 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 ×)
- (2) 풍자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 (3) 고백적 어조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 ×)
- (4)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 ×)
- (5) 동음이의어인 한자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43~45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협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응악, 「그리움」 -

(나)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탕자 울타리가 쳐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 팡팡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별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뼈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 쇠르르 쇠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 청청히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섭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

들꽃 싸야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올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뜩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을 활용하여 넷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을 활용하여 무섭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 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 ④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34~37번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받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굿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B]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B]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①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꼬?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이 아이일 것이다.”

[C]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②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고풍 서서 담론하리라.’

[C]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

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③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여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모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라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④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D]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E]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鬱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

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죽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 청주중사 :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 평원독우 :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 출사 : 벼슬에 나아감.

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증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서 인물의 가계와 성품, 생애, 공과(功過) 등을 '가계-행적-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었다.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警戒)하려는 성격이 강해 교훈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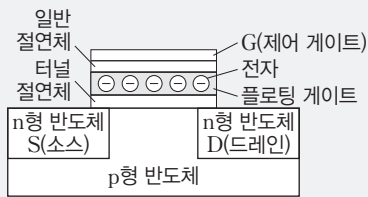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하여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9~21번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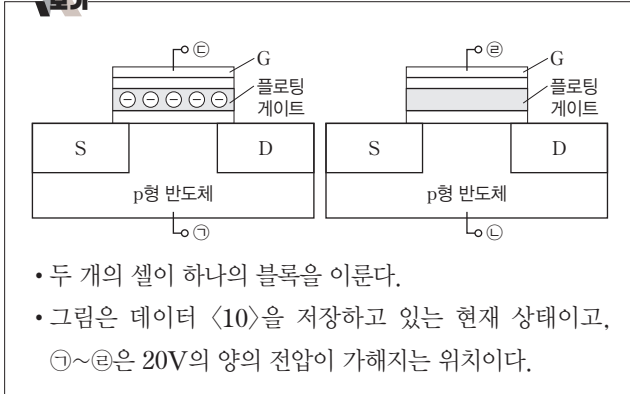
-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8. 밑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9. 윗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보기



- | | 1단계 | 2단계 |
|---|------|-----|
| ① | ㉠ | ㉡ |
| ② | ㉡ | ㉠ |
| ③ | ㉠과 ㉡ | ㉡ |
| ④ | ㉡과 ㉡ | ㉡ |
| ⑤ | ㉡과 ㉡ | ㉠ |

MEMO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26~27번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10.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11.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MEMO

파이널 주간지
1주차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 | | |
|--------|-------|--------|
| ㉠ 나들이웃 | ㉡ 눈웃음 | ㉢ 드높이다 |
| ㉣ 집집이 | ㉤ 놀이터 | |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에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었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었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에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었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었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었군.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3.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훅이[벼훅치]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4~6]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 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4.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5.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개정 전 표시 도안>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g)	
총	○○회 제공량(○○g)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열량	○○○ kcal	
탄수화물	○○g	○○%
당류	○○g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콜레스테롤	○○mg	○○%
나트륨	○○mg	○○%

* % 영양 성분 기준치 :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개정 후 표시 도안>

영양 정보		총 내용량 ○○g
		○○○kcal
①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② 나트륨	○○mg	○○%
③ 탄수화물	○○g	○○%
④ 당류	○○g	○○%
지방	○○g	○○%
트랜스지방		○○g
포화지방		○○g
콜레스테롤		○○mg
단백질		○○g
⑤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은 소비자들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6.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PART 01 문학 개념어 학습 (1)				
1	(1) ○ (2) ○ (3) ○ (4) × (5) ○			
2	(1) × (2) ○ (3) × (4) ○ (5) ×			
3	(1) ○ (2) × (3) × (4) × (5) ×			
4	(1) × (2) ○ (3) × (4) ○			
5	(1) × (2) ○ (3) × (4) × (5) ○			

PART 02 평가원 토피아보기 <문학> (1)									
1	⑤	2	②	3	④	4	③	5	⑤
6	①								
PART 02 평가원 토피아보기 <독서> (1)									
7	①	8	②	9	③	10	③	11	①

PART 03 평가원 토피아보기 <언매> (1)									
1	②	2	②	3	④				
PART 03 평가원 토피아보기 <화작> (1)									
4	②	5	⑤	6	②				

PART 01

현대시 신석정, 「들길에 서서」(EBS 수능특강)

1. (1) ○

설명

1연 1행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2연의 '산림처럼', 4연의 '푸른 산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자는 이를 통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를 든든하게 디디고 사는 것을 숭고하고 기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보는 문학+더하다

직유법(直喩法)

사전적 설명: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

특징: 매개어가 필요하다. '~처럼', '~인 양', '~듯이', '~같이'

(2) ○

설명

1연 2행의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5연의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에서 위, 아래의 수직적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

설명

'산', '하늘', '별' 등에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희망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4) ×

설명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얼마나 기쁜 일이나', '푸른 별을 바라보자' 등에서 서술어의 종결 형식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조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작품에서는 슬픈 현실을 굳건히 견디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지 화자가 지난 삶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

설명

'저문 들길'의 어두운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여 '별'이라는 밝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명암 대비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암담한 현실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별의 선명성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현대시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EBS 수능특강)

2. (1) ×

설명

'아침 햇살'에서 밝음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시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

설명

이 시는 출근 버스에서 출고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한 화자가, 그녀의 힘겹고 고달픈 가정생활을 상상하고 있다.

(3) ×

설명

'팬지꽃 아픔'이라는 시구에서 '팬지꽃'이라는 자연물에 '아픔'이라는 정서가 이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화자'의 정서를 이입한 것은 아니다.

(4) ○

설명

'부처님처럼 출고 있는 구자명 씨'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자명 씨의 출고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X

설명

이 시에서는 구자명 씨의 고단한 일상에 대한 상상이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 등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구자명 씨의 좌절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전시가 작자 미상, 「청산별곡」(EBS 수능특강)

3. (1) O

설명

5연의 '둘'은 화자에게 갑자기 날아와 화자를 울게 하는 상징적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불행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 X

설명

이 시의 '청산'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색채와 대비되어 있지는 않다.

(3) X

설명

2연의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에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시에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4) X

설명

이 시에서는 계절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더욱이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대상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X

설명

이 시에서는 '청산(청산)', '바를(바다)' 등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소재들로 화자의 처지가 변화된 이유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그에 따라 화자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현대소설 이상, 「날개」(EBS 수능특강)

4. (1) X

설명

이 소설에서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로, 2020-9월 모의평가에서 고전소설 「장미전」을 출제하며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뎠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와 같이 서술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를 정

답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다.

(2) O

설명

이 소설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가 없이 서술자인 '나'가 독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3) X

설명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의식이 혼재된 양상을 서술하고 있을 뿐,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O

설명

이 소설에서는 '피곤한 생활이 딱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호느호느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전소설 박지원, 「호질」(EBS 수능특강)

5. (1) X

설명

이 소설에서는 주로 현실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비틀어 보여 주고 있으며,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O

설명

이 소설에서는 고결한 유학자인 북곽 선생과 정결한 과부인 동리자의 위선적 모습을 희화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통해 상징되는 당대 유교 사회가 지는 부정적 모습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보는 문학+더하다

풍자(諷刺)

사전적 설명 :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쓰는 것.

특징 : ① 대체로 '부정적인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같이 있어야 '풍자'까지 고려하여 볼 수 있다. ② 다만 '비판적 태도'는 '직접적'으로 '문제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달리 '풍자적 어조'는 '우회적, 간접적' 성향이 더 깊다. 따라서 '풍자적 어조'를 찾을 때는 '부정적 현실-모순성-비판적 태도-우회' 이 연결 고리를 고려하며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

(3) X

설명

이 소설은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 인물의 내면적 고뇌는 나타나지 않으며, 고백적 어조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다.

(4) X

설명

이 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보는 문학+더하다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은 주로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난다. 인물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인물에 대한 평가 또는 상황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

(5) O

설명

이 소설에서는 의원을 나타내는 '의(醫)'와 의심함을 나타내는 '의(疑)', 무당을 나타내는 '무(巫)'와 무고함을 나타내는 '무(誣)', 선비를 나타내는 '유(儒)'와 아첨함을 나타내는 '유(諛)'와 같이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동음이의어인 한자)'를 활용하여, 의원과 무당, 그리고 선비의 부정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고전 문학 지문에서 어휘에 대한 뜻을 주석으로 제시해 줬다면 눈여겨 봐둬야 한다. 출제자가 얼마든지 선지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PART 0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43~45번

[지문] **영접 조건**

(가)와 (나)의 '시적 공간'을 잘 조준하자.
 <보기>에서 명시했듯,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에 대한 화자의 정서·태도가 핵심을 이룰 것이다.

(가) 이용악, 「그리움」

화자는 추운 밤, 잠에서 깨어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넘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북쪽의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너'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도 여기처럼 눈이 내리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화자의 기억 속의 고향은 맑고 깨끗한 자연과 밝고 청량한 이웃들이 있는 공간이다. <보기>에 따르면 '그곳'은 이미 사라져 없는 곳이다. 하지만 사라졌음에도 '자꾸 안 잊히는',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이다.

1. ⑤

— 문항 명사수의 눈

발췌된 구절 전후의 문맥을 근거로 상황과 정서에 집중한다.

정답 분석

⑤ 화자는 인크병이 얼어들 정도로 추운 밤에 '잠을 깨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때 '어찌자고' 잠을 깨웠냐고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은, 화자의 절절한 그리움과 애달픔을 보여준다.

오답 분석

- ① '눈이 오는가'를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로 보다 강하게 변주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3연에서 그리워하는 '북쪽'에 그 '복된 눈'이 쏟아지길 바라고 있으므로,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백무선 철길'이 험한 벼랑을 '돌아돌며' 깔려 있고, 그 위를 '화물차'가 '달리고' 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철길을 화물차가 '느릿느릿' 달리고 있다는 묘사를 볼 때, 이에 대해 화자가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2연에서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달리는' 화물차로 옮겼다는 점에서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주의** 오발탄

물론 ‘느릿느릿’이라는 점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 자체가 역동적인 이미지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이 ‘멈춰 있는) 백무선 철길’보다 동적인 것은 확실하므로.

- ④ ‘잉크병 열어드는 이러한 밤’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그 상황이 변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②

— **문항** 명사수의 눈

감각적 묘사가 문맥상 어떤 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인지에 유의한다.

정답 분석

- ② 화자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샤르르 샤르르’ 물소리 같기도 하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은 ‘청청히’ 푸르다. 이는 시의 마지막,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 곳에 서 있고 했’던 것에도 유사한 상황이다. 실제로 누군가가 화자를 불렀고, 이것이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꽝꽝’은 단단한 이미지를 준다. 이를 통해 가을에 수수알이 여무는 것에 단단한 속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한 것으로 적절하다.
- ③ ‘아’ 하고 터져나오는 감탄사에 주목할 수 있다. 그만큼 하늘이 너무도 깨끗하고 푸르렀다는 것을 ‘청청히’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④ 갑자기 무서움을 느끼는 화자에게 ‘까르르 까르르’하는 ‘청량한 웃음소리’는 그 무서움을 잊고 ‘그곳에 오래 앉아’ 있게 한다. 이웃들의 웃음 소리에 ‘밝은’ 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적절하다.
- ⑤ ‘또랑또랑’은 또렷한 이미지를 환기한다. 따라서 곡식이 ‘익는 냄새’를 ‘선명히 지각한 경험’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 **선지** 개념 관통하기

음성 상징어

- ① 의성어 :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 예) 짹짹, 으앙으앙, 야옹, 멍멍, 쇠르르, 까르르 등
- ② 의태어 :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 예) 깡충깡충, 펄쩍, 훅훅, 살랑살랑, 또랑또랑 등

3. ④

— **문항** 명사수의 눈

(가)의 고향은 척박하지만, 그리운 공간이다.
(나)의 고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공간이다.

정답 분석

- ④ (가)의 화자는 떠나온 고향에도 ‘복된 눈’이 쏟아지길 기원한다. 하지만 이는 ‘너’가 있는 공간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경우 <보기>를 볼 때, 이미 상실한 공간이다. 고향은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이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가)에서는 ‘밤박눈’의 겨울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개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의 이미지를 통해 밝고 생명력 넘치는 기억 속의 고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의 ‘작은 마을’은 ‘힘찬 벼랑’을 지나,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있다. 이는 고향의 궁벽한 산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나)의 고향은 ‘넋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던 공간이다. 이는 화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의 평화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 ③, ⑤ 적절하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34~37번

[지문] 영점 조준

〈보기〉에 담긴 윗글의 ‘형식’과 ‘내용’적 측면을 조준하자. 가전체라는 갈래적 특징에서 비롯된 ‘가계-행적-논평’이라는 다소 특이한 형식,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와 세상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임춘, 「국순전」

‘국순’은 술을 의인화한 인물로, 그 가계와 행적, 논평이 차례대로 기술된다. ‘술’이라는 속성의 장단점을 통해 그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한 것이 ‘국순전’이나, 내용상으로 술의 부정적인 면을 특히 부각해 인간 세태를 풍자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그로 인한 교훈성을 띠고 있다.

우선 [A]에서 국순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조상이 농서 출신이며, 밀과 보리를 준 경력이 있다. 또한 절구와 절굿공이 사이에서 교분을 맺는데, 이는 술의 발효 과정을 뜻한 것이겠다.

[B]에서는 그 행적 중 출사 전이 기록된다. 섭법사에게 나아가 담론하였는데, 그때부터 유명해지며 그가 없으면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술을 처음 접하며 이에 빠진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때 ‘산도’라는 감식안이 그를 ‘잘났’다고 판단했으나 ‘그르치는 자’도 그일 것이라고 예언한다.

[C]에서는 국순의 출사 후의 내용이 기록된다. 국순이 관직을 차지하고 임금 곁에 가게 되는데, 그가 권세를 얻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맡게 된다. 즉 손님의 접대, 제사 등에 술이 쓰임을 비유한 것이다. 이후 임금이 술에 취해 정사를 폐하게 되고, 신하들이 그를 욕하나 임금은 그를 계속 감싸 준다. 그러나 국순이 입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물러나게 되고, 왕의 명으로 집에 돌아온 국순은 하루 만에 죽고 만다.

[D]에서는 국순에 대한 후일담이 나오는데, 국순의 친척인 청이 당나라에 출사하여 벼슬하고, 중국에서 번성했다고 한다.

끝으로 [E]에서 국순에 대한 논평이 이루어진다. 사신은 국순이 그의 조상으로부터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물려받았으나, 높은 벼슬을 얻게 된 후,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지 못하여서 결국 ‘산도’의 예언이 족히 믿을 만하다고 평한다.

4. ③

- 문항 명사수의 눈

선지를 표현 기법과 이에 따른 효과로 나눈 뒤, 먼저 표현 기법에 따라 정오를 판별한다.

정답 분석

- ③ ‘국순’이라는 인물의 가계, 출사 전, 출사 후, 후일담, 논평 등 그에 대한 예화가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선지 개념 관통하기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죽 늘어놓음’이라는 뜻을 가진다. 즉 예화가 열거됨은 각개의 이야기가 나열됨을 뜻한다.

오답 분석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과거와 현재의 교차 없이, 일대기가 순서대로 기술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이 중재한 적은 없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다.

5. ⑤

- 문항 명사수의 눈

①~④을 먼저 판단하려 하지 말고, ①~④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먼저 해둔 뒤, 선지를 살펴봄에 선지의 해석에 대한 정오판정만 진행해야 한다.

정답 분석

- ⑤ 국순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물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순이 물러난 이유는 임금이 국순의 입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 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와 같았다는 것은, ① 앞에 있는 ‘그릇과 도량’에 대한 말이다. 따라서 이는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② ‘산도’라는 감식안(어떤 사물의 가치를 알아내는 눈을 가진 자)의 예언으로,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라는 점에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 ③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의 불만족스러운 처지를 느낄 수 있으며,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라는 점에서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두 국순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다.
- ④ 국순이 권세를 얻으며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고,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은 그가 공식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6. ②

- 문항 명사수의 논

'가계-출사 전-출사 후-후일담-논평' 형식이 A-B-C-D-E의 차례대로 구현됐음을 인지하고, 선지에 기술된 각 대목들이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분석

- ② [B]에 주인공의 과오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사랑받음이 나타나며, 그에 대한 안 좋은 예언이 나타날 뿐이다. 또한 [C]에 훌륭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긴 하나, 그것이 주를 이룬 것은 아니다. '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임금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 신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에서 주인공의 과오 또한 비중 있게 드러난다.

오답 분석

- ① 국순의 조상에 대한 내력이 소개된다는 점에서 가계의 소개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조상이 백성들을 먹여 살린 공이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 ③ 주인공의 행적 중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왕실을 어지럽게 한 내용이 [C]에 기술되어 있으며, [E]에서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D]에 국순의 친척 중 청이 당나라에 벼슬하여 자손이 번성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⑤ [E]에는 사신이 국순에 대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이 드러난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정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세태에 대한 교훈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9~21번

[지문] **영점 기준**

기술 지문은 '과정 제시의 취지'를 고려하며 글을 읽어내야 쏟아지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해 낼 수 있다. 이 지문의 경우, 2문단은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 3~4문단은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제시임을 반드시 고려하며 독해해야 한다.

한편, 본문에 제시된 <그림>을 글과 끈끈하게 대응시키며 읽었다면, 지문의 정보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플래시 메모리의 셀에 대한 정보가 과하다고 느꼈다면, 이 <그림>에 정보를 메모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자. 정보 처리, 혹은 세부 정보 기억에 대한 부담이 훨씬 경감될 것이다.

7. ①

- 문항 명사수의 논

전형적인 내용 전개 방식의 문제이다. 만약 선지가 두 개 이상 남았다면, 해당 선지가 답이 되기 위해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마땅한 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정답 분석

- ① 1문단과 <그림>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설명한 후,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② 먼저 사용 방법을 제시한 후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마지막 문단에서 셀 면적에 대해 다루고는 있지만,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 요소를 제시했지만, 제작 원리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에 대해서 다룬 뿐, 단점과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②

문항 명사수의 눈

발문에 '플래시 메모리'가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 지문에 제시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전부 기억하고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지를 읽고 나서 판단에 필요하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답 분석

② 플래시 메모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가는 원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4문단). 터널 절연체와는 달리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를 사용한다면 전자들의 이동이 불가능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을 것으로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 분석

- ①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는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할 때, S와 D 사이의 전자 흐름에 영향을 주지만(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때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다면,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고, 반대로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다면,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고 하여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③ 플래시 메모리가 아닌 'EPROM'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셀 면적이 크다는 것은 EPROM이 아닌 'EEPROM'의 단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전원을 커도'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③

문항 명사수의 눈

<보기>에 눈이 쏠려 '발문'을 간과하면 안 된다. 발문 독해가 문항 해결의 시작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 문항의 경우,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할 때"라는 발문의 진술을 읽고, '<10>을 <00>으로 만들어 준 뒤 <01>로 만들겠네!'라는 생각을 했다면 <보기>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내어 답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분석

③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했으므로 왼쪽의 셀이 1, 오른쪽의 셀이 0이기 때문에 <10>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1단계)과 '데이터를 쓰는 과정'(2단계) 두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며,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해 모든 셀을 0의 상태로 만든다. 2단계에서는 1을 쓰려는 셀에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해 해당 셀을 1의 상태로 만든다. <보기>에서는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으므로 1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상태(0과 1)와는 상관없이 '모든' 셀의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과 ㉡에 20V의 전압이 가해져 <00>의 상태가 된다. 데이터를 <1>로 수정해야 하므로 2단계에서는 오른쪽 셀의 G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 ㉢에 20V의 전압이 가해진다.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1단계)과 '데이터를 쓰는 과정'(2단계) 두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며,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해 모든 셀을 0의 상태로 만든다. 2단계에서는 1을 쓰려는 셀에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해 해당 셀을 1의 상태로 만든다. <보기>에서는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으므로 1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상태(0과 1)와는 상관없이 '모든' 셀의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과 ㉡에 20V의 전압이 가해져 <00>의 상태가 된다. 데이터를 <1>로 수정해야 하므로 2단계에서는 오른쪽 셀의 G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 ㉢에 20V의 전압이 가해진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26~27번

[지문] 영점 조준

지문을 읽어가는 시점에서 실재론과 반실재론 모두가 '세계는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잡아낼 수 있었어야만 한다. 지문에서 학설의 대립이 제시될 때는 대비되는 지점을 명확히 잡는 것은 물론, 이들의 공통점 역시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립되는 학설의 공통점은 자주 선지화 됨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10. ③

문항 명사수의 눈

글의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좋은 문항이다. 반실재론이 실재론의 어떠한 면을 비판한 것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반실재론은 "세계의 존재성"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비판한 것이다.

정답 분석

③ '명사수의 눈'에서 언급한 바 있듯, 세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부정했던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논쟁의 성패를 떠나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지문 1문단에 따르면 세계관은 신념들의 체계로,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④ 지문 1문단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고, 이것이 성립해야만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쉽게 말하여, 세계가 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계의 '존재성'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지문 1문단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고, 지문 2문단에서 실재론은 이 근본적인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①

문항 명사수의 눈

'버클리가 반실재론자라는 내용 정도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문제를 푸는 시점에 <보기>의 각 진술에 제시된 사례들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헷갈렸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확인했다면 충분하다.

한편 <보기>의 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등근 모양'의 속성을 급하게 확인하려고 들었다면, 지문의 '형태'에 관련된 내용인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의 '객관적'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쏠리게 되어 선지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선지 판단의 과정에서 판단의 준거가 흐릿할 때 지문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한 자세이나,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급하게 '단어'만 확인하려 하지 말고, 차분히 내용을 확인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원하는 단어를 찾았다고 신나서 선지 판단하지 말고, 해당 단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정답 분석

-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세계 속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클리는 세계 속의 현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으로 구성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ㄴ. 버클리는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비둘기가 지각된다.'에서의 '지각된다'는 '감각으로 인식된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버클리의 입장에서 '비둘기는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ㄷ. 이 주장은 책상이 감각 경험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문 2문단에 따르면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ㄹ. 지문 2문단에 따르면 대상의 '형태'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라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PART 03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 ②

문항 명사수의 눈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언어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중 고난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방법을 지식으로 잘 익혀 두자. 먼저 무엇으로 쪼개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답 분석

- ② 2문단에 의하면,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는 '민물'과 '고기'이고, '민물'의 직접 구성 요소는 '민-'과 '물'이므로,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즉, '민물고기'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민물'이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⑥ '눈웃음'의 직접 구성 요소는 '눈'과 '웃음'이고, '웃음'의 직접 구성 요소는 '웃-'과 '-음'이다. 즉, '눈웃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웃음'이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오답 분석

- ① ㉠ '나들이웃'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나들이'와 '웃'이고, '나들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나들-'과 '-이'이다. 즉, '나들이웃'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나들이'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 '드높이다'의 직접 구성 요소는 '드높-'과 '-이'이고, '드높-'의 직접 구성 요소는 '드-'와 '높-'이다. 즉, '드높이다'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드높-'이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④ ㉣ '집집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집집'과 '-이'이고, '집집'의 직접 구성 요소는 '집'과 '집'이다. 즉, '집집이'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집집'이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⑤ ㉤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는 '놀이'와 '터'이고, '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놀-'과 '-이'이다. 즉, '놀이터'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놀이'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2. ②

문항 명사수의 눈

안긴문장은 평가원이 평가지 좋 좋아하는 단골 출제 요소이다. 항상 '전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답 분석

- ②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이다. ㉠의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에서 '소포가'는 인용절 '소포가 도착했다고'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는 '소포가' +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하는 것

이 아니라, ‘소포가 도착했다고’ + ‘들었다’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 ‘지회는 목소리가 높다.’에서 문장의 전체 주어는 ‘지회는’이므로, ‘지회는’ + ‘목소리가 높다’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목소리가’는 서술절 ‘목소리가 높다’ 속에 포함된 주어이다.
- ②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에서 문장의 전체 주어는 ‘동수가’이므로, ‘동수가’ +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에서 문장의 전체 주어는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이므로,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 ‘밝혀졌다’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때 ‘그가’는 명사절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 속에 포함된 주어이다.
- ④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에서 문장의 전체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이므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 ‘명언이다’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3. ④

— 문항 명사수의 논

평가원에서 음운 변동을 출제할 때 아주 많이 내는 포인트인 “‘ㄴ’ 첨가 후 유음화”, “조음 위치/조음 방법 변동”, “겹받침 ‘ㅃ’의 음운 변동 과정”, “음운 변동 후 음운 개수의 변화” 등이 다 포함된 문제이다. 이 문제에 출제된 사례를 잘 분석해 두자.

정답 분석

우선 <보기>의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확인해 보자.

- ① ‘풀잎[풀립]’은 ‘잎’의 받침 ‘ㅍ’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ㅃ’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받침이 있는 말인 ‘풀’ 뒤에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는 말인 ‘잎’이 결합하면서 ‘ㄴ’이 첨가되어 [풀립]이 된 후, 첨가된 ‘ㄴ’이 앞말의 받침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어 [풀립]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② ‘늬네[음네]’는 ‘늬’에서 겹받침 ‘ㄹ’의 ‘ㄹ’이 탈락하여 ‘ㅍ’이 되고, ‘ㅍ’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ㅃ’으로 교체된 후, 그 ‘ㅃ’이 뒤에 오는 비음 ‘ㄴ’으로 인해 ‘ㅃ’으로 교체되어 [음네]가 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③ ‘벼훑치[벼훑치]’는 ‘훑’에서 ‘ㄹ’의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ㅊ’으로 교체되어 [벼훑치]가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④ ㉠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는 음운 개수가 늘어나는 음운 변동이지만, ㉡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는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는 음운 변동이다.

오답 분석

- ①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나고, ㉡에서도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난다.
- ② ㉠에서 일어난 유음화와 ㉡에서 일어난 비음화는 둘 다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 ③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고, ㉡에서 탈락된 음운은 ‘ㄹ’이다.
- ⑤ ㉠에서 일어난 유음화는 ‘ㄹ’로 인해 ‘ㄴ’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고, ㉡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인해 구개음이 아닌 음(‘ㄷ, ㅌ’)이 경구개음(‘ㅊ, ㅌ’)으로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지문] 영점 조준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의 형태를 짚 훑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21번 문제에 ‘시각 자료’가 있으며, 발문에도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다. 2문단 5행의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를 읽는 순간, 이 부분부터는 지문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21번에 제시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읽어 내려갔다면 21번 문제를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21번 문제는 당시에 많은 수험생들이 헛갈려 했고 많이 틀렸기도 했다. 접근 방식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4. ②

정답 분석

- ② 강연 전개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강연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 ③ 강연 대상인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지 않다.
- ④ 강연 대상인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⑤ 강연 중간에 청중이 질문하거나 강연자가 이에 답하고 있지 않다.

5. ⑤

정답 분석

⑤ 4문단에 따르면 ㉠의 ‘당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의 개정 전과 달리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2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영양 성분 표시 제도의 개정 전에도 그 함량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의 ‘총 내용량당’은 개정 후 달라진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방법이다. 개정 전에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 함량을 표시했는데, 이것이 업체마다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 ② ㉡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은 개정 전의 영양 성분 표시 순서로, 강연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에너지 공급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 ③ 영양 성분 중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예로 ㉢의 ‘나트륨’을 들고 있다.
- ④ ㉢의 열량은 영양 성분 표시 제도의 개정 전과 달리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표시하게 되었다. 이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개정된 것이다.

6. ②

문항 명사수의 눈

발문에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과 같은 어구가 보이면 “지문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질문한 것”을 정답으로 고르자고 생각하자.

정답 분석

② 강연자는 강연 전개부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은 강연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강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강연자는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언급하였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그 성분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연자에게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강연자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 별도의 영양 성분 함량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강연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임을 언급하였는데, 그 권고량이 얼마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Primo

파이널 주간지 1주차

D A Y

2

현대시 한용운, 「해당화」 (EBS 수능특강)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들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1.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십시오.

- (1) 경어체를 구사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
- (2) 자연물에 건넌 화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
- (3)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
- (4)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 ×)

현대시 박재삼, 「한」 (EBS 수능특강)

감나무쯤 되라,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2.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십시오.

- (1) 도치법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부각하고 있다. (○ / ×)
- (2) 명령적 어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 (3)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 ×)
- (4)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

고전시가 작자 미상, 「정석가」(EBS 수능특강)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황성대(先皇聖代)에 노니아와지이다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구운 밤 닻 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요이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그 옷이 다 헐어시아
 그 옷이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무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무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철수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철초(鐵鋤)를 머거사
 그 쇠 철초(鐵鋤)를 머거사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츠리잇가
 즘든 해를 외오곰 여신들
 즘든 해를 외오곰 여신들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 접주하요이다 : 접붙입니다.
 * 철릭 :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3.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시오.

- (1) 시선의 이동을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 ×)
- (2)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
- (3)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대비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 ×)
- (4)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 ×)
- (5) 각 연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

현대소설 이태준, 「돌다리」 (EBS 수능특강)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동네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게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들 소작을 내어맡기고는 서울 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셈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견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잡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쭙 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얹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쭉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네이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돌을 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나 건넌을 수가 있니? 그래 네이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구 튼튼한 돌루 노신 거란다.”

그 후 오륙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面)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면 나무다리가 놓인 뒤에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걸뭇 허러 오누?”

“인전 어머니서편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중략)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에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늘 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멍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버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저 사랑마당엿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땀으며 나라가 어땀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하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되지 않드라.”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헌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제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4.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시오.

(1) 시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 ×)

(2)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과 인물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 / ×)

(3)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 ×)

(4) 사건의 요약적 진술과 인물 간의 대화로 사건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 / ×)

(5)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만을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고 있다.

(○ / ×)

고전소설 작자 미상, 「매화전」 (EBS 수능특강)

[앞부분의 줄거리]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 주부는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 딸 매화와 헤어져 아내와 구월산에 들어간다. 매화는 조 병사에게 구원되고 그 아들 양유와 사랑에 빠진다. 양유의 계모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낸다.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관상쟁이가 이리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길흉을 어찌 하리요.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士夫)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流離乞食)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 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리라.”

하고 나아가거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제 동생을 불러 이르되,
“병사께서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 네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매화 너의 짝이 될지라. 저런 인물을 어찌 그저 두리요.”

한대 최 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더라.

이때에 병사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장단골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길가에 앉았거늘 병사 말을 머무르고 물어 가로되,

“이곳이 연화동이냐?”
“연화동이로소이다.”
병사 물어 가로되,
“연화동이라면 김 주부라 하는 양반 있느냐?”

그 사람이 웃고 대답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이 있더니 남의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이 말을 들으며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 할 줄을 모르다가 다시 생각하여 가로되,

“날이 저물은지라 유하고 갈 터이니 주점을 이르라.”
한대 그 사람이 한 집을 인도하거늘 병사 들어가니 또 한 사람이 물어 가로되,

“말 타고 온 손님은 어떠한 양반인고?”
주모가 가로되,
“저러한 양반이 김 주부 같은 놈을 찾아 왔다.”

하고 냉소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은 이미 도망하였거니와 저희 딸 매화 비록 천인(賤人)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라. 아무 데로 가더라도 남을 속이리라.”

하거늘 병사 주모더러 물어 가로되,
“이 곳에 김 주부라 하는 재인이 있느냐?”

주모가 가로되,
“수년 전에 어디론가 도망하였삽더니 듣사오니 제 딸 매화는 남북을 입고 황해도 연안 지경에 있단 말을 들었나이다.”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는 의혹이 없는지라. 그날 밤을 겨우 지내어 말을 몰아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답하여 가로되,
“만일 부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혼사를 하였던들 사대부 집안에 대단 비웃음을 살 뻔하였도다. 매화는 천인 자식이라 내쫓으라.”

한대 부인이 가로되,
“매화 아무리 천인의 자식이라도 혼사 아니 하면 무슨 허물 있으리까?”

병사 또 학당에 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

하시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엎어지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조 병사 집을 나온 매화는 부모를 만나 구월산으로 간다. 김 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를 잡아와 방에 가두고,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한다.

“동자는 불쌍한 사람을 살려 주소서.”

한대 동자 가로되,
“월명* 그뿐이라 낸들 어찌하리요. 만일 여자 혼신(魂神) 들어와 절하거든 맛절하소서. 정성이 지극하면 천행으로 살아갈까 하나이다.”

문을 잠그고 나가거늘 양유 축하에 앉았으니 정신 산란한지라. 창천에 월색은 명랑한데 구름만 얼른하여도 범이 오는가 하고 바람만 수수하여도 귀신인가 의심할 제 이팔청춘 어린아이 일천간장 다 녹인다. 이윽하여 밖으로 공성이 들리거늘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아가 들어가자.”
“어머님, 어머님, 못 가겠소.”

부인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바빠 들어가자.”

매화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죽어도 못 가겠소.”

문고리 떨렁 방문이 와당탕, 양유 깜짝 놀래어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펴보니 어떠한 낭자 녹의홍상을 입고 들어

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 정신이 아득하여 실로 꿈만 같은지라. 귀신이나, 호랑이나,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과연 남자 일어나 사배(四拜)하거늘 양유 내념(內念)에 행여 살려 줄까 일어나 극진히 절하고 거동을 살펴보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방문이 열치며 한 봉서가 내려지거늘 그 글 보니 하였으되,

‘만산초목이 다 피었으되 양유·매화는 봄소식을 모르는 도다.’

하였거늘 양유 그 글을 보고 여자를 살펴보니,

“연연한 거동은 매화와 방불하다마는 이러한 산중에 어찌 매화가 왔으리요”

남자도 추파^{*}를 번듯 들어 수재^{*}를 살펴보며 가로되,

“산중이라고 어찌 매화 없으리요마는 양유 없는 게 한이로다.”

하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매우 기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매화가 분명하거늘 양유가 가로되,

“네가 죽은 혼이나, 명천이 감동하사 매화 얼굴 다시 보니 죽어도 무슨 한이 있으리요.”

하고 기절하거늘 매화는 흥중이 막히어 아무 말도 못 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지라.

* 원명 : 본디 타고난 목숨.

* 추파 : 인의 맑고 아름다운 눈길.

* 수재 : 미혼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5.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 또는 ×로 답하십시오.

(1) 우의적인 소재를 통해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 ×)

(2)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3)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 / ×)

(4)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38~42번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심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터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더 혼디 녀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들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디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이셔
 깃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 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냉(炎涼)이 쉼 돌아 가는 듯 고토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굿득 냉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버마터 빗죄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터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창 밧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쿵쿵쿵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은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임원 : 산림.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흐느고야’와 (나)의 ‘흐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뒤흔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넘이신가’와 (나)의 ‘넘이신가’는 모두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칭은 유혼’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3.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4.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5.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MEMO

파이널 주간지
1주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22~25번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똥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 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

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은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화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괘짜·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

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6.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7.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 ② '나'는 D 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 ② '나'는 ㉡의 정체와 '노인'이 ㉡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 ③ '나'는 '노인'이 ㉡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④ '나'는 자신과 ㉠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도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제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 ②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 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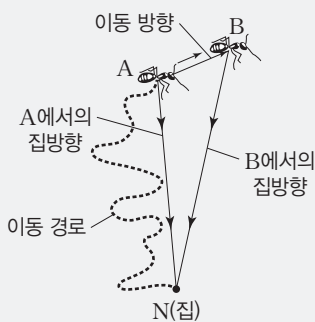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6~18번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도



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overrightarrow{AN} 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overrightarrow{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

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 ③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한다.
- ④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 ⑤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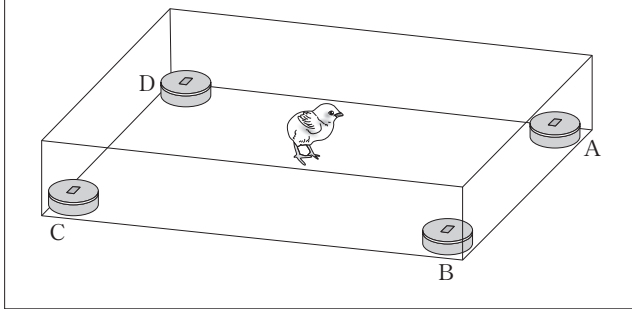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
- ②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 ③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 ④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 가겠군.
- 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 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으려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28~29번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

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13.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14.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맛 ㉠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
 ㉡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 동의 관계, ≡: 유의 관계, ↔: 반의 관계, ⇕: 상하 관계)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동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동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2.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 실천하기 ㉢ 원한다면 제대로 ㉣ 된 계획 세우기가 ㉤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3번

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과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먹을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먹이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먹이라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과 ㉡를 보니, (가) _____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MEMO

파이널 주간지
1주차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4~7번

[4~7]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 ㉠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은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 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가 :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 2 :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 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 선배님은 _____ ㉠

- ①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③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 나는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지.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6.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미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②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인지,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 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③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떠올리는 체험 단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지 단계,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만드는 적용 단계가 있다.

7.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의 평가 내용	
잘한 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①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를 사용한 점..... ②
수정할 점	2문단에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한 점..... ③
	3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 ④
	4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⑤

PART 01 문학 개념어 학습 (2)	
1	(1) ○ (2) ○ (3) × (4) ×
2	(1) ○ (2) × (3) ○ (4) ○
3	(1) × (2) ○ (3) × (4) ○ (5) ×
4	(1) × (2) ○ (3) × (4) ○ (5) ×
5	(1) × (2) ○ (3) × (4) ○

PART 02 평가원 토크아보기 <문학> (2)					
1	5	2	5	3	5
4	3	5	5		
6	2	7	1	8	1
				9	4

PART 02 평가원 토크아보기 <독서> (2)					
10	4	11	3	12	3
13	1	14	4		

PART 03 평가원 토크아보기 <언매> (2)				
1	3	2	1	3

PART 03 평가원 토크아보기 <화작> (2)					
4	2	5	4	6	4
				7	1

PART 01

현대시 한용운, 「해당화」 (EBS 수능특강)

1. (1) ○

설명

이 시는 ‘-비니다’의 높임의 종결 어미를 통해 경어체를 구사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

설명

이 시에서 ‘너는 언제 피었니’는 화자가 해당화 꽃잎을 보고 건넌 말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이는 약속한 때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강조한 것이다.

(3) ×

설명

이 시에는 화자가 ‘나’로 표면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

설명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다시 보는 문학+더하다

반어(反語)

사전적 설명 :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징 : ① 상황을 분석해야 참뜻을 알 수 있다. ② 상황을 분석하지 않으면 비논리적인 말이 된다. ③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르다.

현대시 박재삼, 「한」 (EBS 수능특강)

2. (1) ○

설명

이 시의 1연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감나무’라는 시적 대상을 시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

설명

이 시에서 명령적 어조가 드러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3) ○

설명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이라는 시구에서 화자는 자기 마음속 사랑을 빚던 감나무 열매의 노을빛을 ‘서러운 노을빛’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4) ○

설명

이 시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전 설움’, ‘전 소망’, ‘될는지 몰라’, ‘알아낼는지 몰라’,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등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고전시가 작가 미상, 「정석가」(EBS 수능특강)

3. (1) X

설명

이 시에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다시보는 문학+더하다

시선의 이동

특징 : ① ‘시선’은 ‘화자가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화자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대상에서 화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② 같은 공간 내의 여러 대상에 대한 언급 역시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2) O

설명

2연에서 ‘그 밤(구운 밤)이 음이 돌아 싹 나가시아[그 밤에 음이 돌아 싹이 나아만]’, 3연에서 ‘그 꽃(옥으로 새긴 연꽃)이 삼동이 피거시아[그 꽃이 한 겨울에 피어야]’, 4연에서 ‘그 옷(무소로 재단한 옷)이 다 혈어시아[그 옷이 다 혈어야]’, 5연에서 ‘그 쇠(무소로 만든 소) 철초를 머거사[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 등과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3) X

설명

이 시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O

설명

6연의 ‘끈잇단 그초리잇가[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신(信)잇단 그초리잇가[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 X

설명

이 시는 임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맥락에서 각 연에 제시된 서로 다른 상황들은 모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동일한 성격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각 연마다 다른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현대소설 이태준, 「돌다리」(EBS 수능특강)

4. (1) X

설명

이 소설에서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1) O

설명

이 작품에는 특정 인물인 창섭의 시각을 빌려 서술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의 맨 첫 부분인 “이런 땅을 팔기에는 ~ 될 일이 아니었다.”는 땅에 대한 창섭의 인식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위에 ‘~계시었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라는 높임 표현을 사용한 점은 창섭의 시각으로 인물의 행위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X

설명

이 소설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서술자의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O

설명

이 소설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돌다리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창섭이 대화를 나누는 전개를 통해 사건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다시보는 문학+더하다

제시 방식(1) - 말하기

특징 : ①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방식을 ‘말하기’라고 한다. ② 말하기는 직접 제시는 요약적 제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하다. ③ 서술자가 직접 제시를 하거나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본래의 장면보다 단축되기 때문에 서술 시간이 짧아진다.

제시 방식(2) - 보여주기

특징 : ① 서술자가 간접 제시하는 방식을 ‘보여주기’라고 한다. ②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는 장면 제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하다. ③ 서술자가 간접 제시를 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은 ‘대화’를 하거나 ‘묘사’를 할 때이다.

(5) X

설명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의 내면까지 직접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만을 보여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고전소설 작자 미상, 「매화전」(EBS 수능특강)

5. (1) X

설명

이 소설에서는 우의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을 회화화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없다.

(2) O

설명

이 소설에서는 '병사'와 '최 씨 부인'의 대화, '병사'와 '어떤 사람'의 대화, '병사'와 '주모'의 대화, '양유'와 '매화'의 대화 등 여러 대화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4-4 해설을 참고하도록 하자.

(3) X

설명

이 소설에서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4) O

설명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으며(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병사 이 말을 들으며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 할 줄을 모르다가",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는 의혹이 없는지라.", "양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었어지더라.", "양유 깜짝 놀래어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펴보니 어떠한 남자 녹의홍상을 입고 들어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 정신이 아득하여 실로 꿈만 같은지라.", "매화는 흥중이 막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지라." 등에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 0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38~42번

[지문] **영접 조건**

(가)와 (나)의 '시적 상황'을 잘 조준하자.

둘 다 부재하는 입을 만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므로, 공통된 정서가 포착될 것이다.

(나)와 (다)의 '고요함'을 잘 조준하자.

<보기>에서 명시했듯,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낼 수 있다.

(가)와 (다)의 '공간'을 잘 조준하자.

공간에서의 상황, 정서까지 함께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가) 정철, 「사미인곡」

정철 가사는 보통 '작품의 주제는 아는데, 본문 해석은 안 되는' 양상을 띤다. 유배 상황을 남녀 간의 상황에 빗대어 임금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것은 알아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휘 차원의 해석에서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공부해 두어 사소한 어휘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시험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는, 앞뒤 맥락을 활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품 전체의 관점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바탕으로 사계의 순환이 드러나 있으며, 천상-지상의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나) 신희, 「창 밧기 위석버석」

'임을 향한 기다림과 애태움'이라는 주제가 명확한 작품이다. 임이 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것이 착각으로 밝혀지는 발상 측면에서 이후 시대의 사실시조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짧은 내용 안에 응축되어 있는 화자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고요함'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풀어놓은 고전 수필이다. 두 가지 '고요함'의 의미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간다면, 끝에 제시된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는 필자의 답변이 담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경험-깨달음'과 같이 단순한 구성을 띠는 다른 고전 한문 수필들보다는 약간 복잡한 경향을 띤다. 표현 기

법이나 문체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화자의 깨달음과 견해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1. ⑤

문항 명사수의 눈

고전 어휘에 약하다면 고전할 수도 있는 문제. 내용적인 맥락은 물론, 필요하다면 문법 지식까지 동원해서라도 선지의 정오를 판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답 분석

⑤ (가)에서는 ‘임’과의 동일시 대상인 ‘돌’을 보면서 ‘님이산가 아니산가’ 독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파악할 수 있다. (나)에서는 창 밖의 ‘위석버석’하는 소리를 듣고 ‘님이산가’ 여기며 일어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낙엽 소리를 ‘임’의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노여’는 ‘이 마음이 사랑’을 수식하며, (나)에서 ‘다’는 ‘간장이 고칠다’를 수식한다. (가)의 경우 임에 대한 사랑의 정서를, (나)의 경우 기다림으로 인한 간절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지 개념 관통하기

‘노여’

‘노여’는 ‘전혀’의 의미를 갖는다.

- ② (가)의 ‘흐느고야’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체념적으로 드러내며, (나)의 ‘흐느고야’는 간장이 끊어질 듯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다. 둘 다 ‘화자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 ③ (가)의 ‘미화’는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거신 뒤 보내오져’와 같이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화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며,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와 같이 의인화된 대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혜란’은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며,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 ④ (가)의 ‘므스 일고’는 찬 날씨에도 ‘암향’을 드러내는 ‘미화’에 대한 반가움과 감탄이 담긴 영탄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나)의 ‘므스 일고’는 뜻밖의 대상인 ‘낙엽’을 마주한 후 느끼는 낙담을 드러내는 영탄적 표현이므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의 오발탄

‘므스 일고’와 ‘므스 일고’가 왜 영탄적 표현?

혹시 감탄사 혹은 감탄 어미만이 영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자. 설의법을 통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이 역시 영탄적 표현이다.

2. ⑤

문항 명사수의 눈

‘천상의 시간 질서’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보기>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답을 고르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다.

정답 분석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은 임의 부재 상황이 지속되며 그 흐름이 속절없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화자의 이해가 담겨 있다. 이는 유한한 지상의 인생에서 물리적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선지 개념 관통하기

‘염냥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고 가는 듯 하면서 다시 돌아오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계절의 흐름이 ‘가는 듯 하면서 돌아온다’는 표현은, 시간이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화자는 ‘임’과의 연분을 천상의 세계와 관련짓고 있으며, 이는 <보기>에서와 같이 천상의 시간적 질서 속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 점과 관련된다.
- ② ‘점어 있고’는 화자가 ‘광한던’에서 ‘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를 말하며, ‘늑거야’는 화자가 ‘하계’에서 외로이 지내는 때를 말한다. ‘점어 있고’에서 ‘늑거야’의 전환을 통하여, 화자가 천상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에 편입되었음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화자가 ‘광한던’에서 ‘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를 ‘엇그제’로 표현한 것은, 지상의 물리적 시간인 ‘삼 년’을 심리적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보기>를 통해 지상의 유한한 시간적 질서는 화자를 힘겹게 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인심은 유혈’과 ‘무심한 세월’은 유한한 시간적 질서에 따라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⑤

문항 명사수의 눈
 (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기>를 이해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다)와 <보기> 사이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다시 분석해 보자.

정답 분석

⑤ (다)에서 '누군가'가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인식은, '임원이 이미 고요하다며 <보기>의 '외적 고요'만을 염두해 둔 까닭이다. 즉, '누군가'는 '내적 고요'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외적 고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나)에서 '낙엽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한 것은 그만큼 '임'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와는 거리가 멀다. 즉, 화자의 심기는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보기>를 통해 (다)의 필자는 내적 고요에 대한 추구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으로 인해 필자가 내적 고요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④ (다)의 필자는 당호를 더하여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옛집'에서 삶의 동력이 되는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자 했던 필자의 경험과 관련된다.

4. ③

문항 명사수의 눈
 갈래도, 주제도 이질적인 (가)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제다.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진술된 선지들이므로, 정오 판별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 분석

③ (가)의 경우 자신이 있는 공간인 '하계'에서 느끼는 '임'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다)의 경우 과거 형제들과 함께 선친(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을 모시고 학문과 예술을 담론했던 때를 회상한다.

오답 분석

- ① (가)의 경우 '을 저그 비슨 머리 헛들던 디'에서 인간의 외양 변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 ② (가), (다) 모두 이에 대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 ④ (가)에서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만, 이에 대한 '순응적 태도'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의 경우 문제 상황을 '고요함의 추구'를 통해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 ⑤ (가)의 경우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의 경우 과거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5. ③

문항 명사수의 눈
 다양한 층위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다)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독서 문항에 접근하듯이 문단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정답 분석

③ 필자는 새집에 붙이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의 마음가짐과 깨달음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지, 옛집에 다시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는 필자의 진술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를 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시 찾은 옛집에서, 필자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형제들과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는 일, 시를 읽던 일, 거문고를 들었던 일'을 떠올린다.
- ④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를 통하여 옛집의 외양이 변함없음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를 통해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짓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⑤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를 통해 알 수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22~25번

[지문] **영점 조준**

작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작은 소재들도 면밀히 조준하자.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특히 ‘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에 삽입된 과거 회상 장면이 큰 힌트가 된다. 종락을 전후한 두 부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 부분을 서술해 가는 ‘나’는 고정되어 있음을 단서로 잡아 주인공의 심리를 이해해 가며 읽어야 한다.

6. ②

문항 명사수의 눈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다. 표현법과 문체, 시제 표현을 모두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해당 특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A], [B] 두 부분을 묻기에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선지를 소거할 여지도 많다.

정답 분석

② [A] 부분에서는 ‘~말했어’, ‘~고장났지’와 같은 구어체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 서술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임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다. [B] 부분에서는 ‘~잡힌다’, ‘~내린다’와 같은 현재 시제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관찰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A]는 회상 장면으로 볼 수 있으며, [B]는 ‘노인’의 행동 및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와 [B] 모두 화자 본인의 주관적 정서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두 내용 모두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③ [A]는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공간 이동이 존재하나 그 가운데에서 인물들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보다는 ‘노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며, 외적 갈등과도 큰 관련이 없다.
- ④ [A]에는 인물 간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갈등의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B] 역시 해당 상황에서 노인의 행동만을 제시할 뿐, 갈등 해소와 관련이 없다.
- ⑤ [A]에는 ‘나’의 말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 해당되며, 이 말에 따른 원인/결과로서의 사건이 제시되지 않는다. [B]에는 주변 인물들의 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①

문항 명사수의 눈

인물의 내면 이해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모두 묻는 문제다. 글에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 차분히 정오를 판별해 나가야 한다.

정답 분석

① ‘나’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주변의 사물들과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품은 채, 일상 속 현실에서 ‘권태스럽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던 중 다방에서 ‘나이’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게 된다.

오답 분석

- ②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놓인 것은 ‘OO연대’의 연대원들이다.
- ③ ‘나’는 날이 밝으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각되어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나’와 ‘한병장’이 공격을 받는 장면을 드러나지 않는다.

주의 오발탄

당시 EBS 연계교재에서는 ‘나’와 ‘한병장’이 공격을 받는 장면이 제시되었다. 연계교재로 인하여 아는 장면, 아는 부분이라고 설βολ리 판단하다가 ③번 선지를 고르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제시된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함정 선지이다.

- ④ 결혼 계획을 밝히는 것은 ‘한병장’에 해당한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으며, 자신 내면의 긴장에 대해 말하고자 하여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8. ①

문항 명사수의 눈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되,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묻기보다는 서술자 내면 심리와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이다. 정오판별 자체는 까다롭지 않으나 선지에 쓰인 용어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정답 분석

① ‘나’는 ‘노인’이 물건을 찾는 일을 그만두리라 생각하나, ‘나’의 예상과 다르게 ‘노인’은 물건을 찾는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한다. 따라서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나’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② ‘나’는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 ③ ‘나’는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노인이 ㉞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귀환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으며,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하여도 주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 ⑤ ‘나’는 ㉠로부터 차단되었다고 느끼며, 노인은 잃어버린 ㉞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9. ④

문항 명사수의 눈

〈보기〉를 활용하되, 표현 효과와 인물의 내면이 정확히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분석

④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보기〉의 진술과 같이 시각을 통해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물이 전쟁의 실상을 깨달았거나 체험적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나’는 돌아온 집의 상황을 ‘전선’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아직도 자신에게 ‘전쟁 냄새’가 배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전쟁 상황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나’는 일상 생활의 소리인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두고 일상이 자신의 내면과는 다르게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선에서 돌아온 ‘나’의 내면 및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돌’, ‘벌레’ 등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느끼는 것은 〈보기〉의 진술과 같이 긴장된 상황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노인’의 행위를 보고 ‘방 안을 오락가락’ 하는 것은 ‘나’의 예상이 틀린 것 때문이며, 이로 인한 ‘나’의 번민이 해당 행위로 표출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6~18번

[지문] **영점 조준**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일견 정보량이 많아 보이는 경로적분의 방법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그림을 대응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했다. 그림상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과, 화살표로 표시된 직선(화살표가 있는)의 의미만 제대로 대응시켰다면 경로적분의 방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④

문항 명사수의 눈

지문 독해 시점에, 그리고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조사 ‘도’, ‘만’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은 그토록 강조해왔으니, 체화했으리라 믿는다.

정답 분석

④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정도’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정보는 활용할 것이다.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대로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 ① 경로 적분은 곤충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장소기억’이 아닌 ‘경로적분’이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경로적분’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 내용만으로는 흰쥐가 경로적분을 사용하는지 확정짓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가 아닌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③

문항 명사수의 눈

지문을 읽는 시점에서 ‘반대 추론’은 편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문단의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는 진술을 읽으며 ‘지형지물이 많은 곳이라면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선지판단을 간명하게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⑤번 선지를 택했다면 다음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 (1) 3문단을 읽으며,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짓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 (2) ⑤번 선지 자체를 제대로 읽어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선지에서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했을 것이라 진술하는데,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 ‘아무튼 지문에서 뭔가를 계산하긴 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선지를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

정답 분석

- ③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경로적분을 사용하기 위해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이용한다는 것은, 태양과 햇빛 모두 없는 양쪽 속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경로적분을 활용하는 능력이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경로적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그림만 보더라도 이동 경로와 집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 경로에 상관없이 먹이를 찾은 후에는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⑤ 먹이를 찾으며 이동한 경로의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집까지의 거리가 아닌 ‘방향’만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③

문항 명사수의 눈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고 가정했으니, 지문의 ‘재정위 과정’과 연결시켜 이 <보기>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먹이가 A에만 있다. A의 기하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왼쪽에 긴 벽이 있다는 것’이다.

정답 분석

- ③ 먹이는 A에만 존재하고, 병아리가 장소들을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한다. 기하학적 특징에 따라 장소들을 정리하면 긴 벽이 왼쪽에 있는 ‘A’와 ‘C’, 긴 벽이 오른쪽에 있는 ‘B’와 ‘D’로 분류할 수 있다. 병아리는 먹이가 있던 A의 기하학적 특징인 ‘긴 벽이 왼쪽에 있음’을 학습했을 것이므로,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으면 재정위 과정에서 학습된 ‘긴 벽이 왼쪽에 있음’을 활용하여 A와 C를 높은 빈도로 탐색할 것이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28~29번

[지문] **영점 조준**

1문단에서 제시된 민법 제750조의 사례가 지문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문을 읽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1문단의 정보를 확인해도 좋다. 한편, 4문단에서 ‘문제가 된다’는 진술을 보며 문제의 구체적 양상과 더불어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짐작을 했다면 4~5문단의 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13. ①

문항 명사수의 눈

법 지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부터 선지 판단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법 지문이 낯설고 어렵다면 지문을 읽는 시점에 ‘정의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지문을 읽다가 앞서 정의된 용어가 활용되는 시점에서, 용어가 낯설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야 한다.)

정답 분석

- ① 지문 3문단에 따르면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도록 한 것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공평함을 추구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②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록 만드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의 인정을 통해 입증에 성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지문에서는 ‘개연성’이라는 용어가 직접 쓰인 적이 없는데, 이 정도 단어는 그 의미를 직관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지문 3문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요건을 입증할 책임인 입증 책임은 소송의 원고에게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④ 지문 1문단에 따르면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말이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손해 배상을 다루는 소송에서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패소할 것이다. 이 소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의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 있다. 따라서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인 원고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선지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④

— 문항 명시수의 눈

〈보기〉 사례가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해 사건에 해당하며, 〈보기〉 판결문에 의하면 어민들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 뚜렷이 밝혀져야 할 요건은 총 3개 항인데 비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한 요건은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했다는 사실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문 4, 5문단에서 제시된 공해 소송에 세부 정보를 묻고 있는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지문에서 제시된 ‘인과 관계’가 〈보기〉에서 (1)~(3)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임을 파악한다면 선지의 구체적 사례와 지문의 표현을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분석

- ④ 지문 5문단에 따르면 공해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며,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지문 5문단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공해 소송에서는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다면서,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과 관계의 입증을 위해 증명할 요건을 (1), (2),

(3) 중 (1)로 낮춘 〈보기〉 판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대법원이 (1)~(3)의 인과를 제시하고, 그 중 (1)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과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기〉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하여, (1)의 입증을 통해 인과 관계가 입증된다고 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증명의 책임은 지문 5문단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 ⑤ 지문 5문단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되었을 때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기〉에서 대법원은 인과 관계를 (1) 방류된 폐수가 양식장에 도달하였고 (2) 그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이 있었으며 (3) 이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회사에게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있는 (2)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회사 측에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PART 03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 ㉓

문항 명사수의 논

다소 복잡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 자료’를 잘 보는 것만으로도 정답은 도출할 수 있었다. 항상 ‘그림 자료’는 영역 막론하고 중요하다.

정답 분석

㉓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에서 ‘재미’는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라는 뜻으로, ‘맛[2]’의 의미인 ‘체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과 유사하므로 ㉓ ‘맛[2]’와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미’가 ㉓ ‘맛[1]’과 다의 관계가 될 수는 없다. 다의 관계란 단어 ‘맛’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의 유사한 관계, 단어 ‘재미’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의 유사한 관계와 같이 한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가 서로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단어인 ‘맛’과 ‘재미’가 다의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오답 분석

- ㉑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에서 ‘맛’은 ‘맛[2]’의 의미인 ‘체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이라는 뜻으로, 이는 ‘맛[1]’과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 ㉒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에서 ‘단맛’은 ‘음식 따위를 혀에 닿을 때에 느끼는 감각’이라는 뜻을 지닌 ‘맛[1]’의 하위어이며, ‘단맛’과 반의 관계에 있는 ‘쓴맛’도 ‘맛[1]’의 하위어에 해당한다.
- ㉔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에서 ‘이익’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익’이 ㉔ ‘재미[2]’와 유의 관계라면, ‘이익’과 ‘재미[2]’의 관계인 ㉔은 <보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 ㉕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다의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등의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보기>에 주어진 부호로는 ㉕을 표시할 수 없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2. ㉑

문항 명사수의 논

안은문장 문제 중에서도 다소 생소하게 출제된 편이라 당시에 많은 수험생들이 헛갈려 했다. 특히 선택지 ㉒에서, ‘㉑이 서술어인 문장’이라는 표현을 보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까지 끊은 다음 해당 부분에 명사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잘못 생각한 수험생들이 아주 많았다.

“자, 보자. ‘그것을 꾸준히 ㉑ 실천하기 ㉒ 원한다면’, 오! ‘꾸준하게 실천하기’가 명사절이네. 그 뒤에 조사는 안 붙여 봤군. 역시 평가원은 조사 생략을 좋아하지. 하지만 난 속아 넘어가지 않아. 조사가 안 붙었지만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을 수 있는 자리니까. 밑줄 친 명사절 ㉑은 목적어로 쓰여. ㉒번 정답!”

선택지를 보면 해당 문제에서 밑줄을 친 ㉑~㉒은 어떤 문장의 ‘서술어’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밑줄 친 ㉑ 자체가 명사절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선택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아주 좋은 문제이다.

정답 분석

㉑ <보기>에서 ‘㉑ 건강의 첫걸음이다’가 서술어인 문장은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이다. 이 문장에서 명사절은 ‘주기적으로 운동하기로, 그 뒤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을 볼 때 해당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 ㉒ <보기>에서 ‘㉒ 실천하기’가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실천하다)’이다. 이 문장에 명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 ㉓ <보기>에서 ‘㉓ 원한다면’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원한다면(원하다)’이다. 이 문장에서 명사절은 ‘꾸준하게 실천하기로, 그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 가능한 것을 볼 때, 해당 명사절은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㉔ <보기>에서 ‘㉔ 된’이 서술어인 문장은 ‘제대로 된(되다)’이다. 여기서 ‘제대로 된’이 관형절로서 ‘계획 세우기’를 꾸미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㉔이 서술어인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었다.’임을 알 수 있다. 즉,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었다.’가 관형절로 안 끼면서 주어 ‘계획 세우기가’가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㉔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생략된 명사절 ‘계획 세우기가’는 주어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가 서술어인 문장은 '체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이다. 이 문장에서 명사절은 '계획 세우기'로, 그 뒤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을 볼 때 해당 명사절은 관형어가 아니라 주어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3번

3. ③

— 문항 명사수의 논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 문제이다. <학습 활동>에서 현대 국어 '열리다', '홀어지다'가 자동사로 쓰였음을 확인하고 나서,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라고 진술한 선택지 ⑤를 의심도 없이 정답으로 고른 것이다.

선택지 ⑤를 정답으로 고른 학생들은 '열다'와 '열리다'가 서로 다른 단어이고, '홀다'와 '홀어지다' 역시 서로 다른 단어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열리다'는 '열다'의 어근 '열-'에 파생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으로, '열다'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피동사)이다. 또한 '홀어지다'는 '홀다'의 어근 '홀-'에 통사적 구성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홀다'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다.

'열어'와 '열리어'의 기본형이 서로 다르고, 활용형 '홀어'와 '홀어진'의 기본형이 서로 다르다는 단순한 사실을 물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정답을 고르지 못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고난도 문법 문제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됨에 유의하자.

정답 분석

③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학습 활동>의 ㉠, ㉡를 살펴 보자.

㉠의 중세 국어 '큰 마음 열러'는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에 대응한다. 여기서 중세 국어 '열러(열-+-어)'는 '열다'의 어간 '열-'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 '큰 마음(마음+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 '열다'는 타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 '열러'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열어(열-+-어)' 역시 '열다'의 어간 '열-'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 '마음을(마음+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열다'도 타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의 중세 국어 '自然히 마음 열러'는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에 대응한다. 여기서 중세 국어 '열러(열-+-어)'는 어간 '열-'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 '열다'는 자동사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 '열러'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열리어(열-+-리-+-어)'는 '열리다'의 어간 '열리-'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열리다'는 자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 국어 '열다'가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현대 국어 '열다'가 자동사로 쓰인다면 '자연히 마음이 열어'라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 중세 국어 '번개 구름을 호터'는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에 대응한다. 여기서 중세 국어 '호터(홀-+-어)'는 '홀다'의 어간 '홀-'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 '구름(구름+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 '홀다'는 타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 '호터'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홀어(홀-+-어)' 역시 '홀다'의 어간 '홀-'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 '구름(구름+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홀다'도 타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의 중세 국어 '散心은 호튼 마음이라'는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에 대응한다. 여기서 중세 국어 '호튼(홀-+-은)'은 어간 '홀-'에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 '홀다'는 자동사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 '호튼'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홀어진(홀-+-어-+-지-+-니)'은 '홀어지다'의 어간 '홀어지-'에 어미 '-니'가 결합한 것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홀어지다'는 자동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 국어 '홀다'가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현대 국어 '홀다'가 자동사로 쓰인다면 '산심은 홀은 마음이다.'라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를 통해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만 쓰임을 알 수 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4~7번

[지문] 영접 조건

평가원에서 첫 번째로 출제했던 [화법+작문] 융합 지문으로, 당시에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했던 SET이다. (가)를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잡아낸 다음, (나)에서 (가)와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가)와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②

정답 분석

㉠ ㉡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는 발명가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발명가가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하자, ‘학생 2’는 ㉠과 같이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라며 발명가의 앞선 답변 내용을 재진술한 뒤, 그에 대해 “쉽지 않는데요.”라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학생 1’은 발명가의 설명을 듣고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와 같이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체험-인지-발명’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먼저 설명한 후, 필기구를 예로 들어 ‘체험 단계’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학생 2’는 발명가가 설명했던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와 같이 그다음 단계인 ‘인지 단계’에 대한 내용을 예측하며 말하고 있다.
- ⑤ 발명가는 발명 단계에서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나서, ㉣ “이들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앞의 발화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5. ④

정답 분석

- ④ ㉡에는 (가)에서 발명가가 언급한 내용을 (나)에 포함하여 써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가)에서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발명 단계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4문단에는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나)에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에 발명가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가)에서 발명가는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에서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이 아니라 필기구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나)에는 자전거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가)에서 발명가는 발명이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에는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④

정답 분석

- ④ (나)에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한 것이어야 하며,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인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나)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의의를 제시한 것이므로 (나)에 추가될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하고 있지 않다.
- ②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고 있지 않다.
- ③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핵심 내용을 잘못 요약하고 있다.
- ⑤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하고 있으나, (나)에 제시되지 않은 적용 단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며,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고 있지 않다.

7. ①

정답 분석

- ① (나)에서는 중심 화제인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자전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분석

- ② (나)에서는 2문단의 ‘먼저’, 3문단의 ‘그 후’, 4문단의 ‘마지막으로’와 같이 순서를 알려 주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 ③ (나)의 2문단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 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와 같이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자전거를 타 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기도 하면서 탐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나)의 3문단에서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라는 문장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나)의 4문단에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위치가 잘못 배열되어 있다. 첫 문장이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로 끝나므로,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Premium
파이널 주간지 1주차

D A Y

3

2013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A형 44~45번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벗나무 아래에 굽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에 갇혀있던 푸스푸스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자욱해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 온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꾸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 - 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 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격에서부터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갳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갳게 타오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런 물건 같다.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내 꼴은 흡사 그 귀중한 선물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막 받았을 때의 그 태곳적 원시의 그것과 같을는지 모른다.

나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불의 덕을 찬미하면서 신화 속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좀 있으면 목욕실에는 자욱하게 김이 오른다. 안개 깊은 바다의 복판에 잠겼다는 듯이 동화의 감정으로 마음을 장식하면서 목욕물 속에 전신을 깊숙이 잠글 때 바로 천국에 있

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집 안의 목욕실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사람은 물에서 나서 결국 물속에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 이호석, 「낙엽을 태우면서」 -

1.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의문문으로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과거의 대화를 인용하여 사색을 전개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 사소한 경험이 때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계절과 관련된 ㉠을 통해 ‘화려한 초록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 등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 ㉠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별안간 느끼게 된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⑤ ㉡은 ‘태곳적 원시’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EMO

파이널 주간지 1주차

큰올림 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鶯子初來時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喃喃語不休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語意雖未明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似訴無家愁
느릅나무 왜나무 목이 구멍 많은데	榆槐老多穴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何不此淹留
[A] 제비 다시 지지귀며	燕子復喃喃
사람에게 말하는 듯	似與人語酬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榆穴鶴來啄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槐穴蛇來搜

- 정약용, 「고시(古詩) 8」 -

(나)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下馬問人居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婦女出門看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坐客茅屋下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爲客具飯餐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丈夫亦何在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扶犁朝上山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山田苦難耕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日晚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鄰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雞犬依層巒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中林多猛虎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采藿不盈盤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哀此獨何好
척박한 두메산골 산단 말인가	崎嶇山谷間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樂哉彼平土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	欲往畏縣官

- 김창협, 「산민(山民)」 -

* 호랑이~무서워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공자의 말을 오경의 예기(禮記)에서 끌어온 표현.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그곳'과 (나)의 '평지'는 모두 시적 대상이 두려워하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의 '지지귀며'와 (나)의 '맞아들이고'는 모두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의 '뒤진다오'는 '제비'가, (나)의 '척박한'은 '이웃'이 떠나야 했던 이유를 알려 주고 있다.
- ④ (가)의 '호소하는'은 '제비'가, (나)의 '가련할손'은 '부인'이 느끼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의 '구멍 많은데'와 (나)의 '서성대누나'는 문제 상황에 맞서지 못하는 대상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A]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B]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⑤ [A]는 설득적 어조로 충고를 하는 화자의 모습이, [B]는 차분한 어조로 공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 조선 후기 한시는 옛글을 단순히 모방하는 '의고주 의'에서 벗어나, 새 글을 쓰는 '창신'의 길로 점차 나아갔 습니다. 이때 몇몇은 글이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진경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사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회시 역시 그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시는 피지배층의 삶을 구체적 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우화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당대의 사회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문학 사적 흐름을 생각하며 두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학생 1 : (가)에서 '제비'를 사람처럼 서술한 것은 사회 현실을 글에 담기 위한 우의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어요. ㉠

학생 2 : (가)에서 '황새'와 '뱀'이 나타난 것은 피지배층의 삶이 괴로운 이유를 보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어요. ㉡

학생 3 : (나)에서 '산밭'이 갈기 어렵고 '뜬은 콩잎'조차 많지 않은 상황은 피지배층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도로 볼 수 있어요. ㉢

학생 4 : (나)에서 '고을 관리' 때문에 '호랑이'가 있는 산에서 사는 '부인'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옛것을 배제하여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어요. ... ㉣

학생 5 : (나)에서 '초가집'에서 '밥상 내운' '부인'과 '아침에 쟁기 들고' 나간 '바깥어른'을 언급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진경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시도로 볼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MEMO

2009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36~39번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강(江)·회(淮)·하(河)·한(漢)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들이 다 반총(蟠冢)·동백(桐柏)·곤륜(崑崙)·민산(岷山)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기며 고여 있으나, 땅위에 나오게 되면 흐르고 움직이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괘(師卦)*를 만든 후에 비괘(比卦)*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B]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잇닿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浩浩)하고 꽤연히 넓고 넓어 왈각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C] 내가 하동(河東)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하였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조금 동쪽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冷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 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동네 노인들이 서로 와서 치하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D]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운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聖君)과 지기(知己)를 만나 그 도를 천하에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

[E]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험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고 하였다. 나도 또한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첨, 「원수」-

* 사괘(師卦) :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땅 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 비괘(比卦) : 육십사괘의 하나.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나)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이색, 「부벽루(浮碧樓)」-

(다)

정월 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느고
이월이라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 잔디 속잎 나니 만물이 화려한데
우리 님은 어디가고 춘기든 줄 모르느고
삼월 삼일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하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 도화 만발하고 행화 방초 흥날린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르느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등(觀燈)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 고저에 석양은 비겼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南星)이며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위에 천녀(天女)로다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림등 마늘등과
배등 집등 산대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 탄 체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며 발로 툽 차 구슬등에
칠성등 벌여있고 일월등 밝았는데
동령(東嶺)에 월상(月上)하고 곳곳에 불을 켜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느고

-작자 미상, 「관등가(觀燈歌)」-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다.
- ② (가)와 (다)의 화자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를 표출하고 있다.

7. (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현상 속에 숨은 원리를 제시하며 관심을 유도한다.
- ② [B] : 질문의 방식으로 통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 ③ [C] :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
- ④ [D] : 유추를 통해 현실을 비판한다.
- ⑤ [E] :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감을 준다.

8.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시구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고려 말 이색이 여행을 하다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성의 부벽루에 올라 감회를 읊은 한시이다. 원(元)나라가 평안도 지역을 점령하고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할 즈음 평양은 크게 황폐해졌고, 그 후 다시 고려의 땅이 되었지만 옛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이색은 부벽루 주위의 퇴락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과 관련된 기린마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고려의 국운(國運)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짙게 하고 있다.

- ① ‘지나다가’, ‘잠시’는 작가가 여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텅 빈 성’은 원나라에 의해 쇠약해진 고려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조각달’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 ④ ‘천손’은 고구려의 동명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휘파람 부노라니’는 작가의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9. (다)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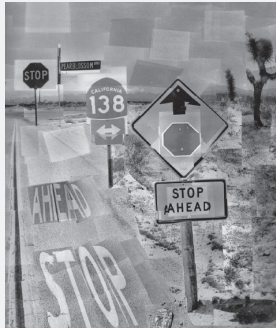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② 역설적 발상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달을 구분하고 있다.
- ④ 비슷한 사물을 나열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큰올림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제 대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사진과는 달리, '메이킹 포토그래피'(Making Photography)는 콜라주* 기법이나 설치 미술 또는 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말한다. 이는 198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된 하나의 사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품을 만든 작가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다. 그의 작품 ㉠ 「페어블라슈 고속도로」는 많은 사진들로 구성된 콜라주 작품이지만 그 구성이 자연스러워 마치 고속도로가 있는 어떤 장면을 한 시점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작품을 구성하는 사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어나가면서 고속도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상자들의 시선은 전체의 모습을 보다가도 다시 각각의 사진을 들여다보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진들은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크기나 방향마저 제각각인데다가 중첩되어 있어 시선의 이동을 불편하게 한다. 호크니가 의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적 혼란이었다.



카메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안된 원근법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언제나 원근법 체계로 구성된 세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서만 대상을 한 시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호크니는 대상을 다양한 시점을 가진 '사진'으로 분해하여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2차원의 평면인 사진으로 3차원의 공간감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한편,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를 주도한 또 다른 작가로는 샌디 스코글런드가 있다. 그녀의 작품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콘티*를 ㉡ 짜고 무대를 설치한 후, 무대에 배치될 소품들과 형상들을 조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에 색을 칠하고 다시 정교하게 배치한 다음, 사람을 무대에 올리고 사진을 찍는다.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일종의 가상적 무대를 설정하고, 물질문명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인간에 대한 경고, 환경 파괴에 의해 닥쳐올 공포에 대한 암시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고 새로

운 전망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진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 콜라주 : 근대 미술에서, 화면에 종이·인쇄물·사진 따위를 오려 붙이고, 일부에 가필하여 작품을 만드는 일.
- * 콘티 : 촬영이나 연출을 위해 각본을 기초로 하여 장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것.

12.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유래
- ②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개념
- ③ 메이킹 포토그래피에 사용된 기법
- ④ 메이킹 포토그래피가 지니고 있는 의의
- ⑤ 메이킹 포토그래피와 기존 사진의 차이점

13. ㉠과 <보기>의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피카소의 「인형을 든 마야」이다. 이 작품에서 마야의 얼굴을 보면,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이지만 코는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겹쳐진 모습도 자연스럽게 지 않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시점을 통해 재구성되어 있다. 피카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평면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②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작품화했다.
- ③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이 주는 표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작품이다.
- ④ ㉠은 개별 사진들을 이어 붙여 공간감을 주었고, <보기>의 작품은 동일한 형태의 연속적 반복을 통해 입체감을 주었다.
- ⑤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한 시점에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모습이 변형되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4. <보기>의 '스티글리츠'가 ㉠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사진은 조각이나 회화 또는 회화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사진 그 자체'이다. 그는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 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성'이 있을 때, 사진의 본질과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사진의 본질은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 ② 사진의 본질은 '사진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
- ③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
- ④ 사진의 본질은 인위적인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사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⑤ 사진의 본질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설정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5. ㉠의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동생과 짜고 나를 꿀탕 먹였다.
- ② 그는 액자를 짜고 그 안에 가족사진을 넣었다.
- ③ 할머니께서는 털실로 스웨터를 짜서 입혀 주셨다.
- ④ 같은 반 친구들끼리 조를 짜니 마음이 서로 잘 맞았다.
- ⑤ 철수는 방향을 맞아 학습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했다.

큰올림 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적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항원)가 침투하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역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 찾아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세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제거하는 ‘킬러 T세포’이다. 킬러 T세포는 우리 몸을 ㉡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킬러 T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몸속 곳곳을 순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림프세포의 일종이다. 림프세포에는 킬러 T세포 말고도 헬퍼 T세포와 B세포가 더 있다. 헬퍼 T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B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체를 생산하게 하고 이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파괴하게 한다. 반면 킬러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한편 킬러 T세포는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킬러 T세포에게 발각이 되면 죽게 된다. 그렇다면 킬러 T세포는 어떤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까?

면역 시스템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세포 표면에 있는 ‘MHC(주요 조직 적합성 유전자 복합체)’이다. MHC는 꽃게 집게발 모양의 단백질 분자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을 세포 표면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본래 세포 속에는 자기 단백질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원래 없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단백질과 바이러스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펩티드* 조각으로 분해되어 세포 속을 ㉢ 떠돌아다니다가 MHC와 결합해 세포 표면으로 배달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킬러 T세포가 활동한다. 킬러 T세포는 자기 표면에 있는 ‘TCR(T세포 수용체)’을 통해 세포의 밖으로 나온 MHC와 펩티드 조각이 결합해 이루어진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자기 단백질의 것이라면 킬러 T세포는 자신이 만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인식하고 그냥 ㉣ 지나친다. 하지만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바이러스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활성화되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단백질을 감염된 세포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킬러 T세포의 공격을 받은 세

포는 곧 죽게 되며 그 안의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 몸의 이곳저곳에서는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 ㉤ 있는 킬러 T세포가 병든 세포를 찾아내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또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짜인 구조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펩티드 : 단백질 분자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면서 보다 작은 유기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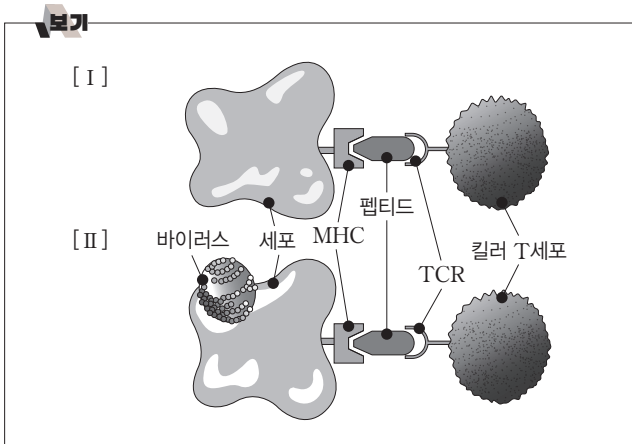
16.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킬러 T세포 중 림프 세포가 아닌 것은 없다.
- ② 헬퍼 T세포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 ③ 킬러 T세포는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여 자연적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 ④ 병든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킬러 T세포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원이 생성된다.
- ⑤ 외부의 도움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낸다면 자연적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8.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한 후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I]의 '킬러 T세포'는 세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겠군.
- ② [I]의 'MHC'가 이동시킨 '펩티드'는 세포 안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겠군.
- ③ [II]의 세포는 '킬러 T세포'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계속 생존하여 활동하겠군.
- ④ [II]의 '펩티드'는 세포 속 바이러스가 그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겠군.
- ⑤ [I], [II]의 'TCR'은 'MHC'와 '펩티드'의 결합 구조를 인식하여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겠군.

19.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요청하여 ② ㉡ : 유지하는 ③ ㉢ : 배회하다
- ④ ㉣ : 간과한다 ⑤ ㉤ : 존재하는

2021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4번

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 ㉠ 지훈이가 야구공을 멀리 던졌다.
- ㉡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
- ㉢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
- ㉣ 날씨가 더우니 하복을 입어라.
- ㉤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자.

※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나타냄.

- ① ㉠의 ‘던졌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 ② ㉡의 ‘밝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③ ㉢의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 ④ ㉣의 ‘입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 ⑤ ㉤의 ‘건강하자’의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2021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5번

2.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 선생님, ‘잊혀진 계절’과 ‘잊힌 계절’의 차이점이 뭔가요?
 선생님 : ‘잊혀진’은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 이중 피동 표현이야.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와 ‘-아/어지다’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잊혀진’의 경우 기본형 ‘잊다’의 어근 ‘잊-’에 피동 접미사 ‘-히-’만 붙어도 피동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어지다’까지 불필요하게 붙여 쓰고 있는 거지.

- ① 안개에 가려진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다.
- ② 칠판에 쓰여진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 ③ 예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이 먹음직스럽다.
- ④ 아이는 살짝 열려진 문틈에 바짝 다가섰다.
- ⑤ 스크린을 통해 보여진 그 풍경은 아름다웠다.

2021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3번

3. 한글 맞춤법과 중세 국어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한글 맞춤법	<p>【제31항】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 수캐(○) / 수개(×) 오살코기(○) / 살고기(×)</p>	
관련 자료	<p>중세 국어에서는 ‘술ㅎ’, ‘암ㅎ[雌]’, ‘수ㅎ[雄]’, ‘안ㅎ[內]’, ‘나라ㅎ’ 등의 ‘ㅎ 종성 체언’이 있었다.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	
	‘ㅎ’이 나타나는 경우	예
	<p>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ㅎ’을 이어 적음.</p>	<p>하늘ㅎ+이 → 하늘히(하늘이)</p>
<p>자음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ㅋ, ㅌ, ㅍ’이 됨.</p>	<p>고ㅎ+기리 → 고키리(코끼리)</p>	
<p>현대 국어에서는 몇 개의 복합어에서만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수캐’, ‘살코기’, ‘암평아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p>		

- ① ‘안팎’은 ‘ㅎ 종성 체언’인 ‘안ㅎ’에 ‘밖’이 결합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이겠군.
- ② ‘수캐’는 ‘ㅎ’이 ‘ㄱ’과 어울려 ‘ㅋ’으로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것이겠군.
- ③ ‘살코기’의 ‘살’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술ㅎ’의 형태로 사용되었겠군.
- ④ ‘나라’는 중세 국어에서 조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 ‘나라히’의 형태로 사용되었겠군.
- ⑤ ‘암평아리’는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 ‘암ㅎ’에 ‘병아리’가 결합한 흔적일 수 있겠군.

큰올림 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4~6]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 게임 중독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힘.
- 주제 :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 예상 독자 :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 일부 학생들은 게임 중독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 게임 중독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의 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부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게임 중독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게임 중독세란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 부담의 일환으로 게임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게임 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게임 중독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게임 중독세는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려면 검증을 통해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담배에 건강 증진 기금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배가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은 유해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게임 중독세는 게임 업체에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다. 게임 업체는 이미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게임 중독세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카지노, 복권 등 사행 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 산업이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독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유독 게임 중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게임 중독세는 게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여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 게임 중독은 게임 이용자의 특성이나 생활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 중독이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게임 업체에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B]

게임 중독세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세금의 과도한 부과로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임 중독세의 도입으로 게임 산업이 퇴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 ㉠, ㉡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게임 중독세의 개념과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하여, 게임 중독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하여, 게임 산업을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다.
- ④ ㉡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들어 게임 중독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 ⑤ ㉡을 고려하여,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을 밝히고 게임 중독세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5.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게임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세는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 ① 게임 중독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 ② 게임 중독세를 통해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③ 게임 중독의 책임을 세금을 통해 게임 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유해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 ④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⑤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는 게임 중독세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6.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검 [B]에는 (㉠)해야겠다.



고친 글	게임 중독세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2010년 7.4조 원이었던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12.5조 원에 달한다. 세금의 과도한 부과로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임 중독세의 도입으로 게임 산업이 퇴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

- ①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
-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 ③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문장이 없으니 이를 추가
- ④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문장이 없으니 이를 추가
- ⑤ 앞 문단에서 다룬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없으니 이를 추가

PART 04 실전 감각 극대화 <문학> (1)

1 ⑤	2 ⑤	3 ①	4 ②	5 ④
6 ③	7 ②	8 ③	9 ②	

PART 04 실전 감각 극대화 <독서> (1)

10 ①	11 ③	12 ①	13 ④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⑤

PART 05 실전 감각 극대화 <언매> (1)

1 ②	2 ①	3 ③		
-----	-----	-----	--	--

PART 05 실전 감각 극대화 <화작> (1)

4 ③	5 ⑤	6 ②		
-----	-----	-----	--	--

PART 04

2013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A형 44~45번

[지문] **영점 조준**

<보기>와 제목을 잘 조준하자.

<보기>에서 윗글이 자신의 일상 체험에 대한 느낌이나 성찰을 담은 글임을 알 수 있다.

제목에 드러난 '낙엽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 '나'가 어떤 느낌이나 성찰을 드러낼지가 관건이다.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가을에 낙엽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떠올리는 모습과, 이를 통해 생활의 의미를 돌아보며 즐거움과 의욕을 되찾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가을이 되어 '초록이 전혀 자취를 감추어 버린' 들판에서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라며 감상에 젖지만, 낙엽이 타는 향긋한 향기를 떠올리며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가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나'는 지상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사소한 일상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1. ⑤

문항 명사수의 눈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분석

⑤ '나'의 '독백적 진술'을 통해 사색을 전개하고 있다. 지문에서 과거의 '대화'를 인용하여 사색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주의 오발탄

1문단의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잣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부분이 대화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는 낙엽 타는 냄새가 좋다는 의미의 설의적 표현이고, '잣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는 낙엽 타는 냄새를 비유한 표현일 뿐이다. 모두 '나'의 독백적 진술이지, 대화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1문단에서 낙엽이 타고 연기가 나는 모습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 ② '잣 볶아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 등 낙엽 태우는 냄새를 비유한 표현과 '꿈의 껍질인 낙엽',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 죽여 버린 꿈의 시체를'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낙엽이 타는 냄새(후각), 여름의 초록과 가을이 불의 붉은색(시각)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 2문단, 마지막 문단에서 의문문이 활용되었다.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평서문 사이에 의문문을 넣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2. ⑤

문항 명사수의 눈

- ㉠ 사소한 경험: 낙엽을 태움, 생활, 일상.
- ㉡ 새로운 삶의 자세: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

정답 분석

⑤ 일단 '태극적 원시'는 현재의 생활, 일상이 아니다. 특히나 '도돌아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낙엽' (가을)을 통해 '화려한 초록의 기억' (여름)이 지나갔음을 생각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 ② 낙엽을 태우는 냄새를 후각적 심상을 통해 비유하여, 사소한 경험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별안간 느끼게 된 것은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곳과 관련이 있다.
- ④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은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큰울림 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지문] **영점 조준**

(가)와 (나)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잘 조준하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가 피지배층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지배층'과 그들을 폄박하는 '지배층'에 대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핵심이다.

(가) 정약용, 「고시(古詩) 8」

화자는 표면적으로 '황새'와 '뱀'의 공격 때문에 집을 잃고 떠도는 '제비'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지배층이 서민들을 폄박하는 사회상이 담겨 있다. 화자는 우화적 기법을 통해 '제비'와 같은 피지배층에게는 연민의 시선을, '황새', '뱀'과 같은 지배층에게는 비판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나) 김창협, 「산민(山民)」

'나그네'인 화자는 산골을 여행하던 중, 어떤 '초가집'에서 그 집 '부인'에게 '밥상'을 대접받고, 이토록 '척박한 두메산골'에서 사는 까닭에 대해 문답을 하고 있다. 부인은 '호랑이' 많은 숲속보다는 '평지' 생활이 편하기야 하겠지만, '고을 관리'가 너무 무서워 평지에는 갈 수가 없다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곧 이 작품의 핵심이자 주제이다. 즉 화자는 '고을 관리'를 피해 '척박한' 곳에 살아야 하는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과, '호랑이'보다 더 무섭도록 약자를 폄박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3. ①

문항 명사수의 눈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통해 두 작품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분석

① (가)의 '그곳'은 느릅나무 구멍과 왜나무 구멍으로 시적 대상인 제비가 두려워하는 '황새'와 '뱀'이 있는 공간이고, (나)의 '평지'는 시적 대상인 부인이 두려워하는 '고을 관리'가 있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가)의 '지저귀며'는 시적 대상인 제비가 내는 소리로 화자와의 거리감과는 거리가 멀고, (나)의 '맞아들이고'는 시적 대상인 부인이 나그네에게 예를 갖추는 표현이라서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두진다오'는 '황새'와 '뱀'이 하는 행동으로, 이 때문에 시적 대상인 '제비'가 '그곳'에 깃들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의 '이웃'이 '척박'함 때문에 떠나야 했다는 것은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호소하는'은 제비가 자신의 서러움을 호소하는 것이며, (나)의 '가련할손'은 평지에 내려가지 못하는 부인의 서러운 삶의 모습을 두고 화자가 평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로움과는 관련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구멍 많은데'는 시적 대상인 '제비'가 '구멍(집)'이 많지만 무서워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나타내므로 제비의 나약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나)의 '서성대누나'는 '개와 닭'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약한 모습과 관련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4. ②

문항 명사수의 눈
작품의 특정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분석

② [A]는 화자가 시적 대상인 '제비'에게 '느릅나무~깃들지 않니'라고 말을 건네며, [B]는 '나그네'가 시적 대상인 '부인'에게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라고 말을 건네며 각각 '제비'와 '부인'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A]와 [B] 모두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A]는 현실의 문제를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며, [B]는 현실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자연 속에 숨어 사는 내용이지만 두 부분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A]는 현재의 내용만 나타나고, [B]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이나 시상 전환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주의 오발탄

'저 너머 평지의 생활이라고 했으니,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었다면, 다시 생각해 보자.
화자는 산골에 있는 '초가집'이라는 공간에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대화 상황 속에서 '평지의 생활'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이지, 화자가 아예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⑤ [A]에서는 화자가 충고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B]에서는 '가련할손'과 같이 대상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차별한 어조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 ④

문항 명사수의 눈

〈보기〉는 출제자의 응축된 해석이자, 관점이다. 최대한 활용하여 선지의 외적 감상들을 판별해낸다.

정답 분석

④ (나)에서 '고을 관리' 때문에 '평지'를 버리고 굳이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 '두메산골'에 산다는 것은, 피지배층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담아낸 것이므로, 〈보기〉에 따라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주에 따르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내용은 '오경의 예기(禮記)에서 끌어온 것이므로, 옛것을 배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가)에서 제비를 의인화한 것은 〈보기〉에 따르면 피지배층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 ② (가)의 황새와 뱀은 〈보기〉에 따르면 피지배층을 폄박하는 지배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에서 농사짓기 어려운 산에서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궁핍한 생활을 묘사한 것은 〈보기〉에 따르면 피지배층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에서 서민들의 생활상을 표현한 것은 〈보기〉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진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009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36~39번

[지문] **영접 조건**

이질적인 주제의 작품들이 서로 엮여 있다. 이럴 땐 특히 (가)~(다)의 형식적 측면을 잘 조준하여 비교하자.

(가) 이침, 「원수(原水)」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함께 인재 등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세태를 지적하고,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상 속 숨은 원리를 제시하고 유추를 통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나) 이색, 「부벽루(浮碧樓)」

고구려 왕조의 옛 찬란한 역사를 회고하며 무상감과 비애감을 드러낸 작품으로, '산', '강' 등의 변함없는 자연물과 황폐화된 옛 고구려의 성을 대조하여 인간의 무상감을 형상화했다.

(다) 작자 미상, 「관등가(觀燈歌)」

각 달의 세시풍속의 명절을 기준으로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각 달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줄 모로난고'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이별의 정한을 부각하고 있다.

6. ③

문항 명사수의 눈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세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분석

③ (나)에서는 영원한 자연('구름', '산', '강')과 유한한 인간사('텃 빈 성')를 대조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소년들의 모습 및 활짝한 만물의 모습과 부재하는 임을 대조해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가)와 (다)의 화자가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의 [C]에서, '내가 하동에 있을 때에~'와 같이 과거 회상이 드러나지만,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나) 역시 '텃 빈 성엔~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에서, 고구려 왕조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있지만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다)는 각 달의 세시풍속을

제시하며 부재하는 일을 그리워하고 있지,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가)의 [D]에서,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 근원을 알지 못함과 같다.’와 같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뇌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권력과 인간사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뇌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는 부재하는 일을 그리워하는 개인적 문제일 뿐,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뇌를 표출하지 않는다.

7. ②

문항 명사수의 눈
작품 속 서술 방식을 명확하고 빠르게 찾는다.

정답 분석

- ② [B]에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상식적 개념(통념)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에서, 현상 속에 숨은 원리를 제시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내가 하동에 있을 때 ...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에서,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에서 유추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선지 개념 관통하기
유추
두 대상의 유사한 점에 의해 다른 사물에 미루어 추측하는 일

- ⑤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험한다.’라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감을 주고 있다.

8. ③

문항 명사수의 눈
〈보기〉는 출제자의 응축된 해석이자, 관점이다. 최대한 활용하여 선지의 외적 감상들을 판별해낸다.

정답 분석

- ③ (나)의 ‘조각달’은 퇴락한 부벽루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낀 쓸쓸한 심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소재로,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9. ②

문항 명사수의 눈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분석

- ② (다)에서 역설적 발상에 의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상하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③ ‘우리 님은 어디 가고~할 줄 모르느고’와 같이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달을 구분하고 있다.
- ④ ‘어룡등과 봉학등과~칠성등 벌여 있고 일월등 밝았는데’에서, 여러 가지 연등을 나열하면서 관등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잔디 잔디 속입 나니 만물이 화려한데’, ‘이화 도화 만발하고 행화 방초 활달린다’에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2011년 PSAT 민경채 간책형 1번

10. ①

정답 분석

① ㄱ :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백성들은 갑오개혁 이후 새로 개정된 신법 (=동전으로 조세납부 하는 것의 전면화)이 반포되자 기뻐했으며, 백성들이 조세금납 전면화를 환영했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이다.

오답 분석

- ㄴ : 대동법이 시행되어 방법으로 인한 폐단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방법이 아예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잡세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조세금납화가 전면화되며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대동법 시행에 따라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ㄷ : 조세금납화는 체제 수호를 위해 대동법과 함께 시행되었는데,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조세금납화가 일본법과 서양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ㄹ : 대동법 시행에 따라 농민의 부담은 감소되었으나, 토지가 많은 양반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011년 PSAT 민경채 간책형 3번

11. ③

정답 분석

③ ㄱ : 1문단에서 겸애는 "남의 부모를 나의 부모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ㄴ : 2문단에서 따르면, 목자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이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목자의 겸애에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베푸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진술할 수 있다.

오답 분석

ㄷ : 1문단에 따르면 목자의 겸애는 '나'와 '남'이라는 관점의 차이를 지양하지는 것이지, 사회적 위계질서를 철폐하지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사랑'이라기보다 불평등한 위계질서 속에서의 사랑'으로 규정되는 목자의 겸애를 '만민평등'의 이념 실현 촉진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 '불평등한 위계질서'의 존재와 '만민평등'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큰올림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지문] 영접 조건

구체적인 작품이 제시되는 예술 지문의 경우, 해당 작품을 일종의 예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지문의 경우 2문단과 4문단에서 각각 제시된 작품의 특징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특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자세로 읽어내어야 한다.

12. ①

- 문항 명사수의 눈

'유래', '개념', '기법' 등의 선지에서 제시된 단어들 이 지문에서 설명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어야 하는지 떠올려 본다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① 이 글에는 '메이킹 포토그래피'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1980년대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만 하였다.

오답 분석

- ②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개념은 1문단에서 언급된 바 있다.
- ③ 1문단에 제시된 메이킹 포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⑤ 3문단에서 기존 사진과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3. ④

- 문항 명사수의 눈

<보기>의 피카소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각 선지를 지문에서 읽어낸 ㉠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판정하는 것도 실전에서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에 대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모든 선지를 한 번 판정한 후, <보기>를 읽으면 ㉠에 관련된 정보와 <보기>에서 제시된 피카소 작품에 대한 정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④ ㉠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카메라로 찍은 다음 사진들을 이어 붙여서 공간감을 드러냈고,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부분들을 다양한 시점을 통해 표현하여 입체감을 드러냈다. <보기>의 작품이 동일한 형태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입체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은 고속도로라는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였고, <보기>는 인형을 든 아이를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 ② ①과 <보기>는 모두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본 것을 작품화했다.
- ③ ①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에 입체감을 구현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평면이 주는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①은 구성이 자연스러운 한 시점에서 찍은 사진처럼 느껴진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피카소의 작품은 코와 얼굴을 바라본 시점이 다르고, 겹쳐진 다리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14. ③

문항 명사수의 눈

본문에서 제시된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차분히 정리한 후, <보기>에서 제시된 스티글리츠가 생각하는 사진의 본질을 정리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비판 문제의 기본은

- (1) '비판의 대상이 가진 성질'을 적절히 비판하고 있는지,
- (2) '비판의 주체'가 진술할 법한 내용인지 (=비판자가 할 수 있는 말인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 문항의 ①, ②, ④ 선지는 (2)에 위배되고, ⑤번 선지는 (1)과 (2) 모두에 위배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자.

정답 분석

③ <보기>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 '사실성'을 가질 때 사진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라 생각했고,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으므로 스티글리츠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가들을 비판한다면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라 했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스티글리츠는 사진의 사실성을 추구했으므로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이용에선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② 스티글리츠는 사진의 사실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
- ④ 스티글리츠가 중요시 여기는 사실성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야만 생기는 것이기에 인위적인 작업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것이다.
- ⑤ 스티글리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가상적인 설정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15. ⑤

정답 분석

⑤ ④의 '짜다'는 '계획이나 일정 따위를 세우다.'의 의미이므로 '학습 계획을 짜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짜다'는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하려고 몇 사람끼리만 비밀리에 의논하여 약속하다.'라는 의미이다.
- ② '짜다'는 '사개를 맞추어 가구나 상자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 ③ '짜다'는 '실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곁어서 천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 ④ '짜다'는 '사람을 모아 무리를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크올림 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지문] **영점 조준**

2문단에서 제시되는 킬러 T세포, 헬퍼 T세포, B세포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3문단~4문단을 읽으며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졌다면, 각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를 차분히 정리하며 읽되 이 정보들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3문단의 세부를 읽어내면서는 'MHC의 역할과 작용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4문단의 세부를 읽어내면서는 '킬러 T세포의 역할과 작용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지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훑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지문을 보기 전에 <보기> 문제를 먼저 훑어보았다면, 3~4문단을 읽는 시점에 18번 <보기> 그림을 활용하여 지문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6. ①

문항 명사수의 눈

이 지문에 '새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 인지할 수 있었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분석

① 글은 '자연적 치유'를 '킬러 T 세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어떠한 이론'이 제시되거나, '새 이론'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 분석

② 2문단, 4문단에서 T세포의 역할 수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에서 면역 시스템을 수호신에 비유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킬러 T세포와 헬퍼 T세포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들은 면역 시스템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1문단에서 '자연적 치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7. ④

문항 명사수의 눈

2문단을 읽으며 각 세포의 역할과 작동 방식을 정리하기만 했어도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분석

- ④ B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헬퍼 T세포이며, B세포가 활성화 되면 항원이 아닌 항체가 생성된다. 1문단에서 바이러스(항원)이라는 단어만 유의해서 보았어도, 쉽게 선지를 판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2문단에 따르면 킬러 T세포는 림프 세포의 일종이다. 따라서 림프 세포가 아닌 킬러 T세포는 존재할 수 없다.
- ② 헬퍼 T세포는 B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체를 생산하게 하고 그 항체가 바이러스를 파괴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 ③ 킬러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제거하는 방식으로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데,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 이겨내는 자연적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 ⑤ 1문단에서 정의된 자연적 치유는 '외부의 도움 없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므로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면 자연적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8. ⑤

문항 명사수의 눈

3문단~4문단에 걸쳐 제시된 MHC, 킬러 T세포의 작용 과정을 그대로 물어본 문항이다.

〈보기〉의 그림 [Ⅱ]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그림 [Ⅰ]은 '정상적인 세포'임을 유추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킬러 T세포가 어떤 성공적으로 활동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어떻게 될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곧 죽게 되며, 그 안의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③번 선지는 4문단에서 제시한 킬러 T세포의 작용의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은 것이다.

정답 분석

- ⑤ [Ⅰ], [Ⅱ]의 'TCR'은 세포의 밖으로 나온 'MHC'와 '펩티드' 조각이 결합해 이루어진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오답 분석

- ① [Ⅰ]에서 킬러 T세포는, MHC에 결합된 펩티드가 자기 단백질의 것이므로 정상 세포로 인식하고 그냥 지나친다.
- ② [Ⅰ]에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없으므로 펩티드는 세포 내의 자기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다.
- ③ 킬러 T세포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바이러스가 있었던 세포는 죽게 된다. 바이러스 역시 죽게 된다.
- ④ 바이러스 단백질과 세포 단백질이 그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펩티드 조각'으로 세포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MHC와 결합하여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다.

19. ⑤

정답 분석

- ⑤ '존재하다'는 '현실에 실재하다'를 의미한다. ㉠의 '있는'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를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① '요청하다'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는 의미이다. ㉠의 '찾아'는 '어떤 것을 구하다'를 의미한다.
- ②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는 의미이다. ㉡의 '지키다'는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를 의미한다.
- ③ '배회하다'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는 의미이다. ㉢의 '떠돌아다니다'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다'를 의미한다.
- ④ '간과하다'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는 의미이다. ㉣의 '지나친다'는 '어떤 곳을 머무르거나 들르지 않고 지나가거나 지나오다'를 의미한다.

PART 05

2021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4번

1. ②

문항 명사수의 눈

동사, 형용사의 구별은 평가원에서 아주 자주 출제해 온 요소인데, 나올 때마다 많이들 헤매고 틀린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자.

정답 분석

②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에서 ‘밝는다’는 어간 ‘밝-’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로 쓰일 수 있는데,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뜻을 지닐 때는 동사로 쓰인다.

오답 분석

- ① “지훈이가 야구공을 멀리 던졌다.”에서 ‘던졌다’는 어간 ‘던지-’이며, 그 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하여 각각 ‘던진’, ‘던지는’, ‘던져라’, ‘던지자’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던졌다’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③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에서 ‘아는’은 어간 ‘알-’에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④ “날씨가 더우니 하복을 입어라.”에서 ‘입어라’는 어간 ‘입-’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⑤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자.”는 비문인데, 그것은 형용사 ‘건강하다’의 어간 ‘건강하-’에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보기>에 의하면 형용사 어간에 청유형 어미 ‘-자’는 붙지 않는다.

2021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5번

2. ①

문항 명사수의 눈

평가원은 이미 2020-9월 모의평가에서 ‘내리치다’의 ‘-리-’가 접사가 아님을 출제해 준 적이 있다.

① ‘가려지다’는 기본형 ‘가리다’의 어근 ‘가리-’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가리다’에서 ‘-리-’는 접사가 아니므로 형태소로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답 분석

② ‘쓰여지다’는 기본형 ‘쓰다’의 어근 ‘쓰-’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③ ‘담겨지다’는 기본형 ‘담다’의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④ ‘열려지다’는 기본형 ‘열다’의 어근 ‘열-’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⑤ ‘보여지다’는 기본형 ‘보다’의 어근 ‘보-’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2021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3번

3. ③

문항 명사수의 눈

중세 국어 문제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제시된 자료, 설명을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해결하자.

정답 분석

③ 현대 국어 ‘살코기’는 중세 국어의 ‘솔ᄃᆞᆫ’과 ‘고기’가 결합하여 ‘ᄃᆞᆫ’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ᄃᆞᆫ’ 중성 체언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ᄃᆞᆫ’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살코기’의 ‘살’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솔ᄃᆞᆫ’이 아니라 ‘솔’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현대 국어 ‘안팎’은 ‘팍’의 ‘ㅍ’을 고려해 볼 때, 중세 국어의 ‘안ᄃᆞᆫ’과 ‘팍’이 결합하여 ‘ᄃᆞᆫ’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를 알 수 있다.
- ② 현대 국어 ‘수캐’는 ‘개’의 ‘ㄱ’을 고려해 볼 때, 중세 국어의 ‘수ᄃᆞᆫ’과 ‘개’가 결합하여 ‘ᄃᆞᆫ’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를 알 수 있다. 즉, ‘수’의 ‘ᄃᆞᆫ’ 중성이 ‘ㄱ’과 어울려 ‘ㄱ’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④ 현대 국어 ‘나라’는 중세 국어에서 ‘ᄃᆞᆫ’ 중성 체언인 ‘나라ᄃᆞᆫ’으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ᄃᆞᆫ’ 중성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경우 ‘ᄃᆞᆫ’을 이어 적는다. 그러므로 ‘나라ᄃᆞᆫ’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할 경우 ‘ᄃᆞᆫ’을 이어 적어 ‘나라ᄃᆞᆫ’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 ⑤ 현대 국어 ‘암평아리’는 ‘평아리’의 ‘ㅍ’을 고려해 볼 때, 중세 국어의 ‘암ᄃᆞᆫ’과 ‘평아리’가 결합하여 ‘ᄃᆞᆫ’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를 알 수 있다.

큰올림국어연구소 자체 제작

[지문] 영점 조준

주장하는 글쓰기가 출제될 때에는, 필자가 제시한 ‘근거’를 잘 짚으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이를 다시 재반박하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4. ③

정답 분석

③ (나)에서는 게임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 산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서는 게임 산업이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 산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게임 산업을 사행 산업으로 분류한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

오답 분석

- ① (나)의 1문단에서 게임 중독세란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 부담의 일환으로 게임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면서 게임 중독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서 게임 중독세는 게임 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쓰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의 1문단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차 개정판에 등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의 3문단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게임 중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⑤ (나)의 2문단에서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 중독세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5. ⑤

정답 분석

⑤ [A]에서는 게임 중독이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에 게임 중독세를 물리는 것은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게임 중독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며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게임 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A]에 대해 반박한다면,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게임 중독세를 통해 게임 업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되면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②

정답 분석

② [B]의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문장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으로, ‘고친 글’에는 삭제되어 있다. ‘고친 글’에는 ‘2010년 7.4조 원이었던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12.5조 원에 달한다.’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